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3차년도

# 태평동 Art Dream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3차년도

태평동  
Art Dream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3차년도

# 태평동 Art Dream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3차년도

# 태평동 Art Dream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제3차년도

## 태평동 Art Dream

발행인 | 이대엽, 이종덕  
편집인 | 노재천  
기획총괄 | 박승현  
기획진행 | 이종필  
발행처 | 성남문화재단  
www.sncf.or.kr / www.snart.or.kr  
발행일 | 2009. 1

사진·글 | 김소연  
디자인 | 위례디자인  
인쇄 | 형제인쇄그룹

© 성남문화재단

## 태평동 Art Dream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예술이 노니는 태평4동

Art-Dream 을 위한 행복한 꿈.

성남문화재단에서 추진한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첫 사업지였던 태평동!

골목길 프로젝트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에서 당초 계획한 3년 사업이 모두 종료되었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문화기반 조성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드높이는 문화복지 공동체 구현이라는 목적이라 추진되었다.

태평4동은 성남시의 도시가 형성되던 초창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웠던 시절, 어두운 시절로 있고 싶은 기억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때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태평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산에 나무를 베고 민동산 위에 20평씩 격자형으로 그어 집을 지으면서 살기 시작한 곳. 그래서 지금도 다다다닥 붙은 집 사이로 좁은 골목길과 언덕이 이 지역의 상징이 되었다. 넓은 길에 높게 올라간 고층아파트가 주를 이루고 있는 요즘 도시 모양에 비하면 어떤 사람은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골목길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골목길 평상이 친근한 사랑방이 되고, 성남 시가지를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는 높은 언덕의 멋이 있고, 길모퉁이 작은 슈퍼의 다정함이 배어있고, 길가에 가로수 대신 집집마다 가꾸어 놓은 작은 화단이 있는 곳.이곳에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문화공간을 만들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즐기는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2006년 골목길, 담장, 공터 등 생활공간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갔던 '태평동에 예술이 노날다'

2007년 어린이들이 동네 소식을 한울신문과 한울뉴스로 만들었던 '꿈꾸는 아이들'

그리고 3년차인 2008년 꿈꾸는 아이들에 이어 주부들의 문화예술 소모임을 구성한 'Art-Dream'

지난 3년간 동네 문화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다.

아직도 골목길 상가에는 3년 전 아트리폼을 했던 흔적이 남아 있고,

여기저기 담장에는 예쁜 그림들이 남아있으며,

골목 어귀를 돌면 그때 만들었던 평상위에 걸터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만날 수 있다.

한울뉴스 홈페이지(www.art-dream.or.kr)를 보면 동네를 누비며 취재하는 아이들의 기사를 볼 수 있고,

현충탑 아래 노인복지관에서는 주부들이 그림을 그리고 판화를 만들고, 사진을 찍는다.

지난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라는 3년간의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들에게 신선한 만남이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예술이 나의 삶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고, 이웃을 이어주는 소통의 계기였다. 주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동을 하

고 있는 작가들에게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갖게 했다. 주민이 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의 의미와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도시에 대한 희망을 갖게 했다.

물론 여러 가지 아쉬움과 몇 가지 과제를 남기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문화를 만들고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운동을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귀찮지만 오랜 세월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생활이 되어 버리듯 문화란 오랜 시간 반복되어지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동네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지속되지 못하면 그저 좋았던 추억이나 기억으로 남고 말 뿐 그 어떤 변화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열정, 문화예술가들과의 결합, 행정 및 예산의 확보가 요구된다.

지속성과 함께 참여하는 주민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몇몇의 어린이와 주부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 보다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동네문화공동체 형성은 멀기만 한 과제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끝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가들의 결합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성남지역에는 전문예술가 뿐 아니라 사랑방문화클럽 등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이 동네에 관심을 갖고, 주민을 찾아오고, 함께 소통하며 창작활동을 한다면 동네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생활 속에 가능한 구체적 활동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벌써 2009년 새로운 장이 열렸다.

멀리서나마 봄내음이 손짓하고 있는 듯하다.

곧 태평4동을 보듬고 있는 영장산에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필 것이다. 골목길 화단에도 꽃이 피고 새 학기를 맞이한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재잘거리며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어르신들도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평상에 나와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따스한 봄별을 쬐 것이다.

성남에서 가장 먼저 동네문화공동체가 시작된 곳.

이곳에서 골목길 앞에 이젤을 피고 그림을 그리는 아줌마와 주민들이 연주하는 음악회가 있고, 영장산 공원에서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음악에 맞춰 함께 춤을 추며 온 동네가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태평4동을 꿈꿔본다.

예술이 노니는 태평동 Art-Dream을 위한 이 행복한 꿈은 이제부터 태평4동의 주민들이 나서서 만들어 가는 새로운 시작과 함께 펼쳐질 것이다.

- 4 태평동 Art Dream 프로젝트북을 펴내며
- 8 태평동 Art Dream 사업 취지와 의미
- 10 골목길 이야기
- 12 2008 전체 프로젝트 일정 소개

특별 송이꽃들의 꿈, 민들레

1. 한울신문

- 18 태평동의 비오는 토요일
- 22 한울기자 오리엔테이션
- 28 하늘과 더욱 가까운 태평동
- 30 기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 32 옛 지원이 기사가 아작...
- 35 기자님! 더 물어볼 거 없어요?
- 36 취재 전 약속은 필수!!!
- 38 선배 기자들과 함께한 첫 취재현장
- 40 신입기자 소개
- 42 눈이 내려요
- 43 후배들과 다시 찾은 지역아동센터
- 45 풍경소리를 따라간 봉곡사
- 46 예! 우리 할아버지신데..
- 48 2008년 발행된 한울 신문

2. 골목길에서 만난 사람들

- 50 정이 오가는 아재가게
- 52 옥상 위의 에덴동산
- 54 느티나무 같은 송정슈퍼
- 56 영장산에서 만난 다섯 분의 할아버지
- 58 골목길을 떠나는 날
- 60 태평동의 가수 할머니들

3. 한울영상뉴스

- 64 관촬 관촬 관촬
- 66 장비를 소중히
- 68 영장산 촬영
- 72 보충수업
- 73 월가닥 소녀들이 찾아왔어요!
- 74 4컷 촬영실습
- 76 개성있는 가지증 사진 촬영
- 77 영상뉴스 촬영
- 78 한울영상뉴스 상영회

민들레 꽃씨, 태평동에 내려앉다

1. 시간의 기록

- 86 내 사진이 신문에
- 88 꿈꾸는 연우씨
- 92 직접 찍어보는 증명사진
- 93 증명사진 편집 해보기
- 97 영장산 출사!
- 98 우리동네 출사 -1
- 102 우리동네 출사 -2
- 104 남한산성 출사
- 108 따뜻한 옥매트 위에서
- 110 렌즈로 바라 본 태평동

2. 그림마을

- 116 팔 살 빠지겠네!
- 118 네모 그림자가 세모가 되버렸네!
- 120 다시 문을 연 그림마을

민들레, 송이탕처럼 익다

124 태평동 Art Dream 발표회

민들레 꽃씨 분기

130 세종대왕을 찾아서

민들레의 꿈

- 136 한울신문, 우리동네 신문 보셨어요?
- 138 참여자 후기

## 태평동 나동에서 동쪽 태평동까지.

아이들이 용기종기 모여 하수구 맨홀 뚜껑에 그림을 그리고, 집집마다 화단을 가꾸고,  
 골목마다 평상을 만들며 예술이 놀이가 되어 마을을 꾸미고 즐거워 하던 2006년.  
 어린이들이 기자증을 달고 카메라와 수첩을 들고 동네 곳곳을 취재하여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를 만들던 2007년.  
 그렇게 2년이 지나며 시선의 변화를 느낍니다.  
 매일 오고가는 골목, 늘 스치는 아이들과 이웃,  
 눈길조차 주지 않던 길목 귀퉁이 아스팔트 틈새를 비집고 피어난 민들레.  
 내가 살아가고 있고, 이웃이 함께 하고 있는 삶터 태평동에 작지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 2008년 봄

성남문화재단의 후원으로 우리동네문화공동체만들기 프로젝트의 3년차 지속사업인  
**태평동 Art Dream**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락하며 평안한 마을을 위한 한울 어린이들의 활약에 더불어 주민들도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은 만남과 소통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이웃과 만나고 마음을 주고 받으며 아이들 이야기, 집안 이야기,  
 동네 이야기 등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어느새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은 배움과 창작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조리개, 셔터, 스케치, 구도, 색감... 생소한 단어들.  
 평소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배우고,  
 나의 이웃과 나의 삶터를 돌아보며 나만의 작품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믿음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할 때만이 살만한 사회가 된다는 단순한 진리를  
 태평동 Art Dream을 통해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 골목길 이야기

태평동은 굽이치는 골목길로 이루어졌다.  
골목길은 차가 아닌 사람이 다니는 공간이다.  
현대의 도시들은 정체성과 역사, 관계로 지칭되지 못하고 오직 좌표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비공간만을 양산해 내고 있다. 골목길은 좌표화 되어가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 아직 남아 그 이야기를 지키는 회복의 공간이다.

태평동은 우리 나라 최초의 계획도시인 성남에서도 근대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성남출장소가 있었던 곳이다. 고향을 떠나 정착한 낯선 도시 속에서 손바닥 만한 흙 한줌의 틈이나 옥상의 빈공간에도 푸르름으로 채워 넣는,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혜를 가진사람들이 태평동 사람들이다.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훈터트바서(Hundertwasser)는 그의 나이트 이론을 이렇게 설명한다.  
“첫번째 피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부이며,  
두번째 피부는 옷,  
세번째 피부는 집,  
네번째 피부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며,  
마지막 다섯째 피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복잡한 골목길만큼이나 다양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정을 나누고,  
자연과 더불어 숨쉬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태평동!  
태평동 Art Dream의 꿈이  
한울신문, 한울영상뉴스, 시간의 기록, 그림마을이란  
꽃을 피워 민들레처럼 퍼져나가는 그 곳!

그 곳에 한번 가보자!!



2008 전체  
프로젝트 일정소개

**3월** 태평동 Art Dream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결정

**4월** 한울후원회 모임에서 '시간의 기록', '그림마을' 프로젝트 결의  
제5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4월호)

**5월** 프로젝트 기획안 마련 및 회원모집  
제6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5월호)

**6월** '시간의기록' 수업 시작  
제7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6월호)

**7월** '그림마을' 수업 시작  
제8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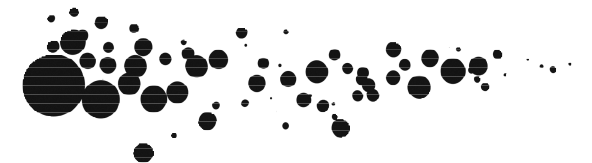
**8월** 한울기자 2기 오리엔테이션  
한울영상뉴스 2기 기자 오리엔테이션  
한울영상뉴스 영장산 촬영

**9월** 한울영상뉴스 탁구부 창단식 촬영  
제9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9월호)

**10월** 한울영상뉴스 태평동 체육대회 촬영  
제10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10월호)

**11월**

**12월**  
한울신문주최 역사기행 '세종대왕을 찾아서'  
제11호 한울신문 발행 (2008년 12월호)  
태평동 Art Dream 발표회



# 수백 송이 꽃들의 꿈 민들레

- 01. 한울신문
- 02. 골목길에서 만난 사람들
- 03. 한울영상뉴스

하나의 꽃처럼 보이는 민들레 꽃은  
사실 수백 송이의 날꽃들이  
'민들레' 라는 하나의 꿈으로 모여  
커다란 꽃송이를 이룬 것이다.

민들레 꽃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서로 이웃하여 살아가는 수백 송이의 꽃들처럼  
태평동 아래 살아가는  
각자 다른 꿈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그 태평동에서 '한울' 이라는 꿈으로 뭉친  
신문반과 영상뉴스반 꽃들을 만나보자

수백 송이  
꽃들의 꿈  
민들레

# 01

2006년 처음으로 시행된 태평4동 프로젝트  
'태평동에서 동라태평하세'는  
2007년 통장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들이 기자로 참여하고  
마을이 하나 될 수 있는  
'한울신문' 과 '한울영상뉴스' 를 만들었다.

2007년 7월 본격 가동 된 사업은  
태평동의 금빛초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문과 영상 두 부분에 대한 기자단 모집으로 시작했다.  
12명으로 시작한 한울신문은  
현재 9명의 1기 기자가 남았고,  
한울영상뉴스는 8명의 기자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중학교 입학 을 앞두고  
활동을 잠정적으로 접은 상태다.

2008년에는 2기 기자단을 모집하여,  
1기 기자들과 함께 신문과 영상을 만들면서  
태평동에 한울을 이어가는 기반을 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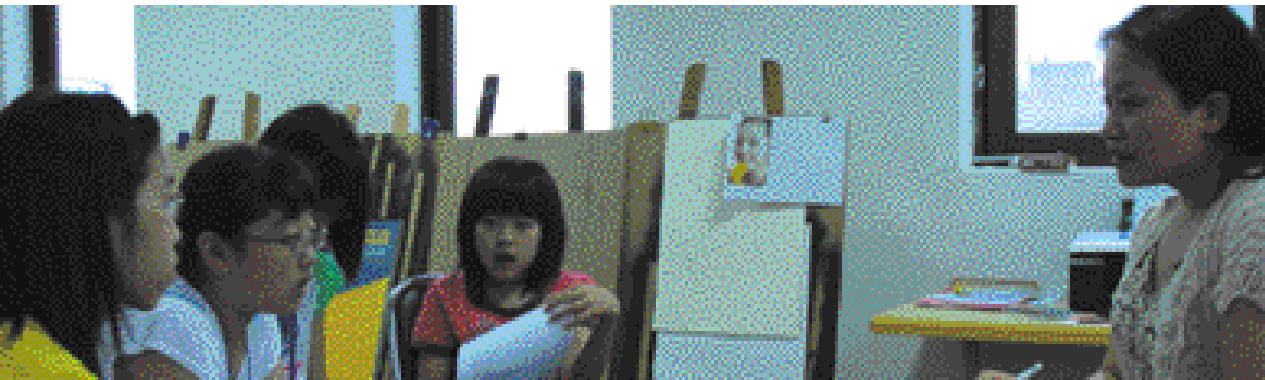


## 태평동의 비오는 토요일 2008.07.19

몇 주째 토요일만 되면 비가 내린다.  
 경사진 골목길을 꼬불꼬불 올라가다 보니  
 높은 곳에서 부터 내려오는 빗물이  
 마치 홍수가 날 것처럼 쏟아져 내린다.  
 태평동은 경사가 가파른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아래서부터 태평동을 오르는 사람들에게는  
 빗물이 퍼붓듯 쏟아져 내리는 느낌을 갖게 한다.  
 옥상마다 작은 정원을 가꾸는 태평동은 비오는 날 더욱 푸르르다.  
 어느덧 태평4동 복지회관 앞에 머무르니  
 3층에서부터 세어나오는 여자아이들의 웃음소리!!

제일 처음 만난 시영이는 수줍게 오시영기자라고 찍힌 명함을 건넨다.  
 미처 명함을 준비하지 못한 다른 친구들은  
 “아~ 꼭 필요할때만 안 가져온단 말야!” 하면서 아쉬워한다.  
 오시영기자님이라.... 멋지다!

지~~~익 지지지지지~~~익  
 거북이처럼 느린 프린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한줄 씩 글을 뽑아내고  
 그 동안 아이들은 빈종이에 낙서를 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이야기도 하면서  
 익숙한 듯 가사가 뿜혀져 나오기를 기다린다.



## 맨발의 소녀들

거북이 프린터가 한울신문 기자단이 한달 동안 취재한 기사들을 모두 토해내고 박연우 선생님이 편집회의의 시작을 알리자, 분산하던 아이들은 다들 의자 하나씩을 꿰차고 선생님 주변에 모여 들었다. 시영이, 은지, 헤빈이, 은하, 그리고 박연우선생님까지 다섯 명은 비가 신발을 적시는 날씨 때문에 모두 맨발이다. 이렇게 모인 5명의 맨발의 소녀?들은 원고를 꼼꼼히 살펴보며 오타점검을 비롯하여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번에 발간할 신문에 대해 논의했다.



## 은지야! 추어탕 정말 맛있어?

시영이가 이번 달 '맛집맛집' 기사를 취재한 은지에게 묻는다.

“안 이상해?”

“어! 맛있어!! 그냥 생선 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은지는 제법 어른스럽게 취재하면서 먹어 본 추어탕에 대해 설명했다.

시영이도 추어탕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것 같다.

“이 기사에서 고흐 사진이 너무 작은것 같아요! 사진을 좀 키우면 어떨까요?”

메인 글씨체와 색깔도 이제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기자들은 매서운 눈매로 디자인과 오타 등의 오류를 지적해 낸다.

어린이 기자들의 지적에 박연우선생님은

“그럼 너희 의견을 전부 정리해서 디자이너 아저씨가 잘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제안 하도록 하자” 하고 정리를 해주신다.

## 제 기사에 누가 댓글을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꽤 여러번 기사를 써 보았지만 은하는 아직도 자신이 쓴 기사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반응이 항상 궁금하다.

기자단 중에 가장 조용조용한 은하지만 기사에 대한 의견만은 적극적으로 표현한다. 더 좋은 기사를 쓰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이 느껴졌다.

이번달 '만들어봐요' 마음에 든다.

그런데 만드는 과정 사진이 있었으면 더 좋을것 같아

한번 직접 만들어보면서 헤빈이가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다.

이번 달 '신데렐라' 기사는 어디다 넣는게 좋겠니?

이번엔 기사분량이 많아서 지면배치에도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니다.

아이들 신문이라 가볍게 끝날 수 있는 편집회의라고 생각했는데

여느 신문사의 편집회의처럼 진지함과 치열함이 열보였다.

## 기사를 써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8월호 신문 기사배치와 지면배치에 대한 의견들이

오가고 잠시 침묵이 이어지자...

갑자기 아이들의 관심이 새로 뽑을 후배 기자들에게 향하기 시작한다.

8월 1일에 신입기자 오리엔테이션이 잡혔기 때문이다.

“몇 명 뽑아요?”

“침에 한 두달은 연습해야겠죠?”

“신청한 애들은 어떤 애들이예요? 미리 좀 알려주세요!!”

공간은 삼시간에 왁자지껄 해진다.

다들 누군가 말을 먼저 꺼내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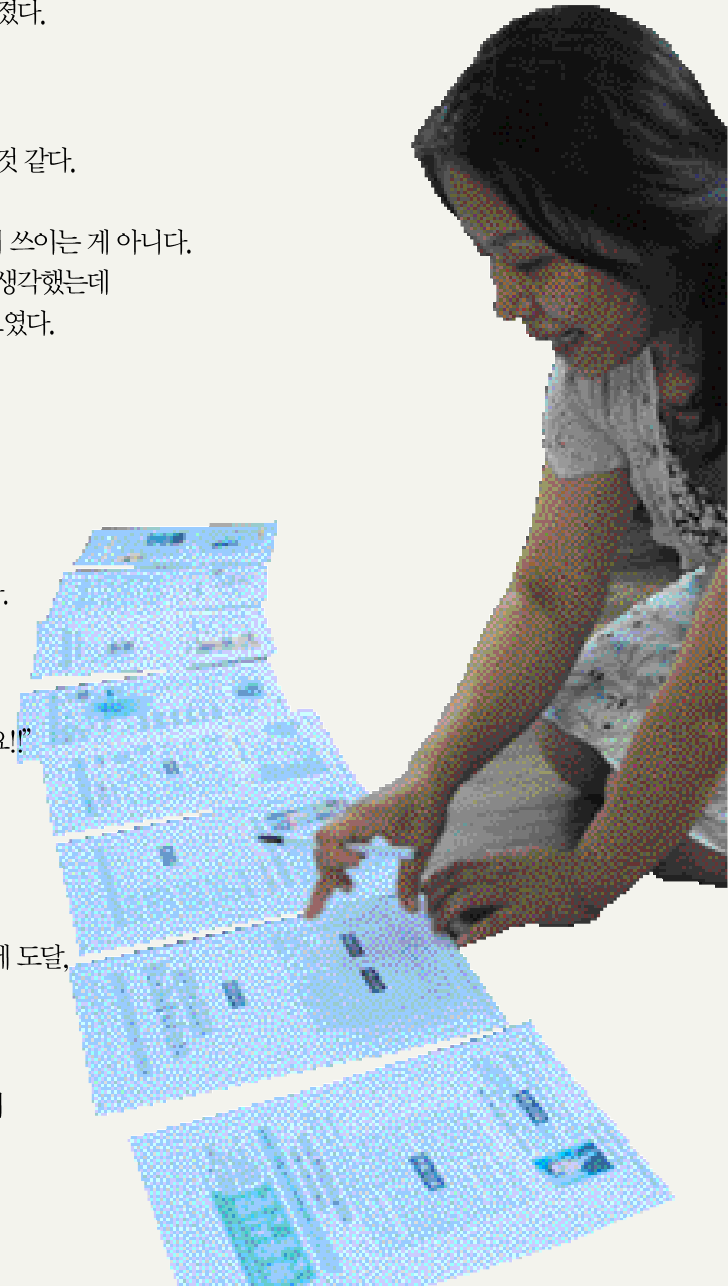
의견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기소개서로만 평가하는 건 어려운 거 같다는 결론에 도달,

주제를 주고 기사를 써보게 하는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선배기자다운 간간한 요구로 귀결되었다.

아마도 이번 신입기자들은 까다로운 선배기자들 덕에 힘든 관문을 통과해야 할 듯 하다 ^^



## 한울 기자 오리엔테이션 2008.08.01

### 기자가 되러 가는 길

방학 중의 금빛 초등학교 교정은 한산하다.  
한울 기자 오리엔테이션이 있는 교실을 찾아가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축구 골대 옆에 아이들 서너 명 만이 뛰어놀고 있다.

큰 소리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교실이 어디 있는지 문자  
사전지를 탄 한 소년이 운동장을 비~잉 돌며 나타난다

한울영상뉴스 때문에 오셨어요?

한쪽에 든 캠코더를 흘깃흘깃 쳐다보면서

“저도 기자 신청 했는데...”  
라면서 따라오라며  
계단을 올라선다.

기자가 되는 길에 첫 발을 내딛 소년에게  
저 계단 만큼 많은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태평4동 ART-DREAM 총기획자 김성수씨의  
사회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다.  
이미 교실에는 후배들이 궁금해 모인  
한울신문 기자 은지, 은하, 한홍이, 지원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신입기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울신문 기지는 5학년 여학생 5명, 남학생 2명이 지원했고,  
한울영상뉴스는 모두 10명이 지원했으나 방학중이라  
연락이 수월치 않아 오늘은 3명만 참석했다.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 지원자로 나누어  
자리에 앉으라는 주문이 떨어지자  
교실은 잠시 자리를 찾아가는 아이들로 분산하다.

그때 은하가 수줍게 다가와 무언가를 건넨다.  
“저.. 저번에 못 드린 명함이에요!” 하며  
화알짝 웃는 모습의 사진이 이쁘게 박힌 명함을 내민다.  
지난번 만났을때 명함을 못 준 것이  
마음에 계속 남았던 모양이다.

### 한울신문은 오늘 시험볼 겁니다!!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쓸 텐데  
지원 동기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줄 예정이에요!  
앞으로 20분간 시간을 줄게요!

긴장한 듯한 예비기자들은 한자씩 연필을 꺾꺾 눌러가며  
종이를 매꿔가고 선배기자들은 궁금한지  
기웃기웃 예비기자들의 글을 곁눈질 한다.  
1차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글이 완성되자 박연우선생님과 4명의 기자들은  
예비기자들의 지원서를 꼼꼼이 살펴본다.  
“여기서는 ‘하겠습니다’란 표현 보단  
‘...에 임하겠습니다’가 나올것 같아요!”  
선배기자는 마치 기사를 점검하듯 지원서의 표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짚어낸다.

지원서에 이은 한울신문 2차 시험은  
세종대왕을 인터뷰 했다고 생각하고 기사글을  
육하 원칙에 맞춰 작성해 보는 것이다.





제한된 자료로 각자 다양하게 글을 써내려간다.  
진지하게 하나하나 써 내려가는 손길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보다 사뭇 더 진지해졌다.

“세종대왕님이 말씀 하셨습니다”가 아니고  
“세종대왕님이 말했다”가 맞는 표현이야!”

편집장 은지가 예비 기자들의 글을 보고 조언을 해준다.  
다른 선배 기자들도 중간 중간 예비 기자들의 글을 보며  
질문도 받아주고 조언도 해주는 등 언니들 다운 모습을 보였다.  
한살 차이 밖에 나지 않는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들이지만  
선후배 사이라 그런지 더 예의를 갖추고 챙기는 모습이 어른들 못지 않았다.

“기자에게는 원고마감이 생명이야!”

"정확하게 16분 남았어요!  
마감시간 지켜 내세요!"  
박연우선생님이 엄격한 시간엄수를 알리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둘 씩 글이 완성되어 간다.

한울영상뉴스 지원자는 10명,  
그러나 방학 중이라 연락이 수월치 않아서 오늘은 3명만 참석했다.  
여학생이 위주인 한울신문과 달리 아까 길을 알려준 자전거 소년 상린이를 포함하여 모두 남학생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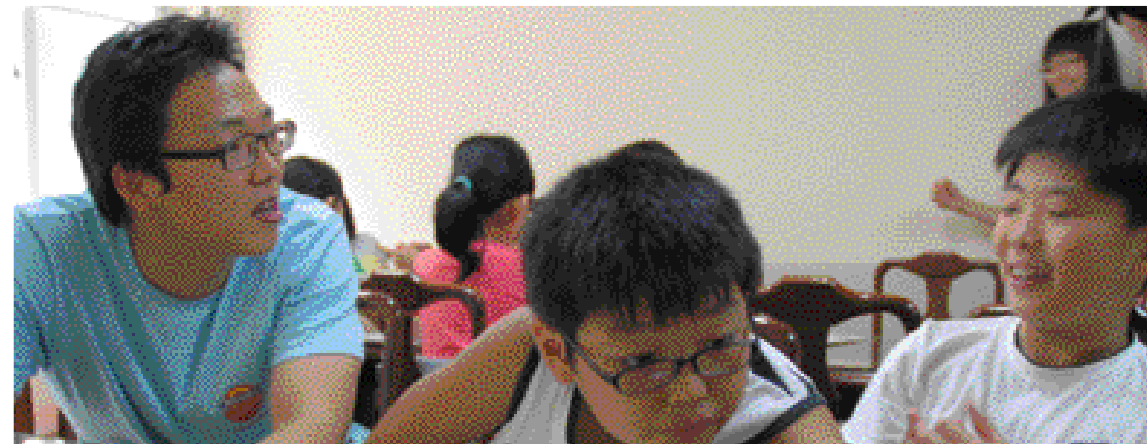
작년에 한울영상뉴스를 책임지신 우장순 선생님과  
올해 한울영상뉴스를 함께 진행할 곽대현 선생님은  
오늘 오리엔테이션 참여 학생이 적어  
추후 모임일정과 오늘 연락을 못 받은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잠시 의논하였다.

방학 중이라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친구들과  
학원일정이 이미 잡힌 학생들이 많아서  
앞으로의 수업 일정 등을 잡기가 수월치 않았다.

우선은 오늘 참여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울영상뉴스 만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갖기로 결정하고

오늘은 다섯 남자가 오붓한 수다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한울영상뉴스 기자 지원자들답게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신 카메라와 캠코더 등의  
기계에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







“와~선생님 이 카메라는 어떻게 찍어요?”

“저 한번 찍어봐도 되요?”

“저도 나중에 이 큰 캠코더도 촬영할 수 있어요?”

“이거 무지 비싸죠?”

형준이는 카메라와 캠코더 가격이 궁금하다.

“이번에 저희 집에 다카를 샀는데... 엄마가 사진을 너무 많이 찍어서 메모리가 부족해요!”

종원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얘기하자 광대현 선생님은  
다카에 있는 사진을 컴퓨터에 옮겨서 보관하고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노라고 약속했다.

한울신문 예비기자 친구들이 열심히 기사를 쓰는 동안  
한울영상뉴스 예비기자 3인방은 사진을 찍고 찍혀보고, 캠코더를 만져보는 등  
나름의 예비기자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있었다.

## 즐거운 수박파티!!

한울신문 예비기자들이 기사를 써보는 작문시험을 보고,  
한울영상뉴스 예비기자들이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보는 동안  
유광영 태평동장님께서 수박과 포도를 한아름 들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교실을 찾았다.  
아이들의 얼굴에 함박 웃음이 번지고 이윽고 한울신문 예비기자들의  
2차시험이 끝나자 즐거운 수박 파티가 벌어졌다.

아이들이 시원한 수박을 먹으며 쉬는 동안  
박연우 선생님은 예비기자들에게 다음 모임 공지를 했다.  
“월요일에 한울신문 카페에 합격자 공지를 하겠어요!”

“합격한 사람은 공지된 시간에  
태평4동 복지관 3층으로 찾아오는 게 미션이에요!”

서바이벌이야!!

기자는 그게 어느 장소든 취재 장소를 찾아가는 능력이 있어야 해!”

“선배님처럼 같이 찾아가도 되요?” 하고 예비기자가 묻자,

“그럼, 그건 너의 능력이란다!” 라고 박연우선생님이 대답해주신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동사무소가서 길을 물어봐야겠다.”

“인터넷에서 길을 찾아봐야겠다!” 하고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아직 어린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준비된 기자들답게  
불만없이 미션을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한울영상뉴스팀은 광대현 선생님이 오늘 참가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보고 가능한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다음 일정을 잡아  
연락을 주겠다고 하자,  
형준이가 오늘 못 온 친구들의 학원시간을 알려주면서 오후 시간대에 모여야  
더 많은 친구들이 모일 수 있을 거라고 귀뜸해줬다.



## 하늘과 더욱 가까운 태평동

2008.08.09

몇 주째 토요일마다 비를 퍼붓던 하늘이  
오늘은 너무도 푸르르다.  
골목길 사이사이의 그늘은  
타는 듯한 8월의 태양을 피하게 해주어  
길을 걷는 이의 눈부심을 덜어주고  
골목길을 감아도는 바람은  
길을 오르는 이의 무더위를 식혀준다.

태평동의 골목길을 오르며  
카메라 렌즈를 통해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찔하게 솟은 집들 틈으로 조각난 하늘이 터키석처럼 반짝인다.  
유난히 높은 태평동에서는 보석처럼 빛나는 하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다.

오늘은 한울신문 예비기자들이  
기자들의 아지트인 태평4동 복지관을 찾아오는 날  
요즘 초등학생들의 방학은  
어른들 만큼이나 일정이 바쁘다는 것을 알기에  
몇 명이나 이 곳을 찾아올까 궁금해진다.

## 선배님들이랑 함께 왔어요!



신입기자 시험에 통과한 학생들 중에 유일하게 이 공간에 찾아온 다희!  
태평4동 복지관은 찾기 어려운 골목에 위치해서 처음 오는 사람은 한번에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데...  
어린 예비기자는 그새 선배 기자들을 포섭해서 아주 잘 찾아왔다.  
더불어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여행, 학원, 교회 일정 등등의 이유로 오  
늘은 참석하기 힘들다고 전해준다.  
역시 요즘 학생들은 방학 때 더 바쁘다!

## 저는 '아름다운 봉사' 를 담당해요!



그동안 바빠서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지혜는 반짝이는 분홍안경  
이 돋보이는 뽀얀 피부를 가졌다.  
지혜에게 후배 신입 기자들에게 바라는 점을 물어봤다.  
“기자는 성실해야해요! 모임 약속도 잘 지키고... 기사 마감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라고 푹부러지게 말한다.  
“지혜는 마감 잘 지키니?” 라고 묻자  
“처음엔 잘 했는데...요즘엔.....” 하며 얼굴이 발그레해지는 모습이 귀엽다.

## 무조건 여러각도로 많이 찍어봐요!



귀여운 4차원 소녀 헤빈이는 이미지, 사진 담당기자다.  
친구들이 기사를 쓸 때 마다 쫓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많이 가보는 기자 중에 한 명이다.  
사진을 잘 찍는 노하우를 물으니...  
“무조건 여러각도로 많이 찍어 봐요!” 라고 방법을 알려준다.  
“우리 동네가 좀 시끄러울 때가 많은데.. 사진으로 보면 조용해요!” 라며  
헤빈이표 사진의 매력도 설명해준다.

선배 기자들은 총 9명, 이번에 뽑힌 신입기자는 따로 우선으로 지원의지를 밝힌 친구까지 합쳐 총 8명이라  
박연우선생님은 신입기자 교육이 끝나면 선후배 일대일 동행취재를 예정하고 있다.



## 기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2008. 08. 23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비신입기자 교육이 있다  
한우, 한주, 다희, 지선이, 소윤이, 소명이는  
무더운 여름  
황금같은 주말에 진행되는  
한울신문 신입기자 과정을  
꾸준히 참여할 수 있을까?

2:1의 경쟁률을 뚫고  
자기소개와 지원의지도 밝히고,  
처음 써보는 기사 작문 시험도 통과했다.

하지만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이론 교육을 거치고,  
선배들과 함께 취재현장도 누벼야 하며,  
오타 수정 등 선배들의 일도 보조해야 하는 등의  
단계들이 남아있다.

여섯명의 예비기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고  
한울신문 기자증을 받을 수 있을까?

공간이 좁아 보일 정도로 사무실이 복잡복잡하다. 한쪽 상에는 선배기자들이 기사 마지막 수정을 보고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신입기자들이 박연우선생님과 함께 이론 수업을 받고 있다.

### 기자는 어떤 사람일까? “기자는 사람들에게 최신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박연우선생님의 질문에 한주가 또박또박 얘기한다.

한주는 신문반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화로 참여의지를 강력히 밝혀서  
함께하게 된 친구다. 공부도 잘하는 한주는 과학전문 기사를 써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당찬 아이이다.  
한주에 이어 한명씩 자기가 생각하는 기자의 역할을 말하기 시작한다.

“그럼 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선생님의 질문에 아이들이 잠시 머뭇거린다.

### “무엇보다도 기자는 사람을 사랑해야 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좋은 기사를 쓸 수 없어! 알겠지?”

모두들 고개를 끄덕인다.

### 선생님! 우리 언제부터 기사 써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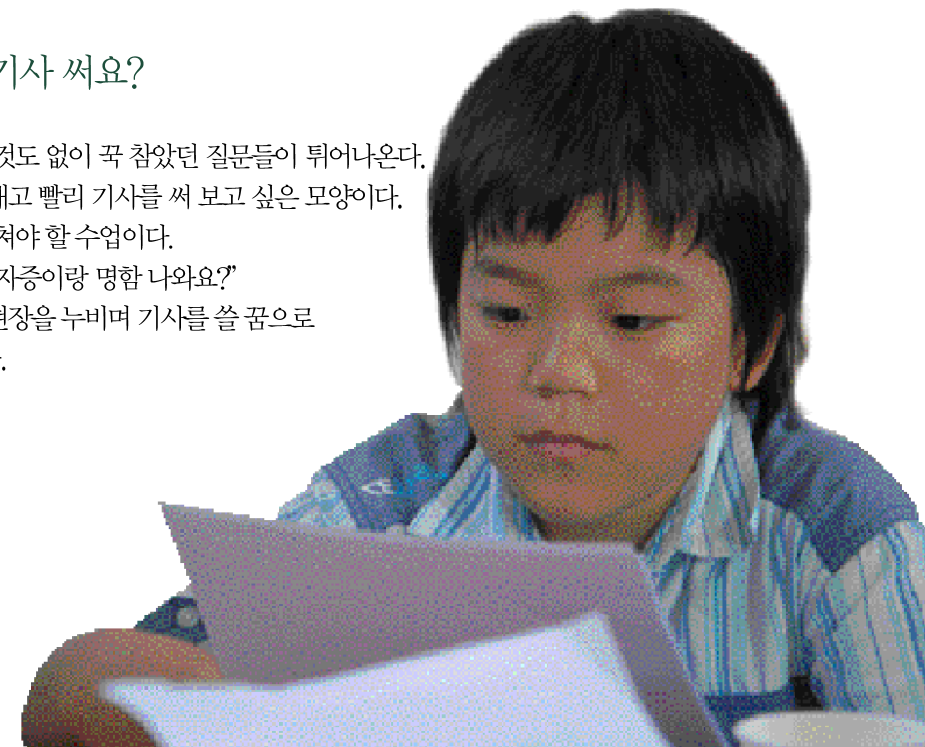
수업이 끝나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꼭 참았던 질문들이 튀어나온다.

아이들은 지루한 이론 수업을 끝내고 빨리 기사를 써 보고 싶은 모양이다.

하지만 기자가 되기 위해선 꼭 거쳐야 할 수업이다.

“우리도 올해까지 교육 끝나면 기자증이랑 명함 나와요?”

벌써부터 기자증을 받고 멋지게 현장을 누비며 기사를 쓸 꿈으로  
예비기자들의 마음은 부풀어 있다.







옛 지원이 기사가 아직... 2008.08.30

편집회의를 하는 선배기자들과 이론수업을 하는 신입기자들로 나누어 일정이 진행되었다. 오늘은 편집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8월 신문 마감에 한참 지났고 신문이 벌써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사하나 마저 핑크가 났다. 기사를 핑크 낸 지원이는 미안한지 연락이 두절되었고.. 다들 분위기가 무겁다. 오늘 처음 본 승민이는 노란 안경에 웃는 모습이 귀여운 버섯머리를 한 소녀다. 그 동안 바빠서 못 나왔지만 기사는 빠지지 않고 작성해서 카페에 올렸다고 한다.

오늘 회의 끝에 승민이가 핑크난 '오버 더 레인보우' 기사를 소위 '땀땀' 하기로 결정됐다. 그동안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승민이는 두말 않고 결정을 받아들이고는 바로 기사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에 들어갔다. 8월호 신문인데 오늘은 8월 30일이다. 이제 6학년이 된 아이들은 너무 바쁘기도 했고 방학이라 스스로도 헤이해지기도 했다고 고백한다.

### 마감은 이미 지났다.

기자는 마감에 생명이란 아이들의 발등에 불뿔이 떨어진 것이다. 요즘들어 바쁜 일상을 핑계로 마감에 삼사일씩 늦추더니 드디어 일이 터진 것이다. 하지만 심각함도 잠시, 기사 오류를 검색하고 땀땀 기사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던 아이들의 얼굴에는 금새 다시 웃음이 번진다. 마음이 타는 것은 엄마들과 선생님들 뿐인 듯, 심각하던 아이들은 기사의 오타 하나에 금새 피식하고 웃음이 번진다.

금새 활기를 찾은 아이들은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선수가 태평동 출신이라는 이야기로 시끌댄다. 게다가 금빛초등학교 선배님이라시니...아이들의 눈이 반짝인다. 아마도 다음 호 신문에서는 남현희 선수를 만나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된다.





##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이들의 취재 현장을 가보다

한울신문의 여름엔 많은 일이 있었다.  
마감을 미루는 일이 얼마간 지속되다가 결국엔  
8월호 신문이 나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평택으로 이사 가신 박연우선생님은  
올 한해 토요일마다 한울신문과 사진반 어머님들을  
만나러 성남으로 먼 길을 마다 않고 오셨다.  
하지만 올해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  
한울신문을 올해까지만 참여하시기로 결정하신 박연우선생님은  
선생님이 안 계실 내년이 걱정된다.  
편집장 은지에게 많은 역할을 주고  
아이들 스스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지켜보기로 했다.

똑똑하고 책임감 강한 한울신문 기자들이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  
바쁘고 들뜨는 방학 중이라  
기사는 제때 올라오지 않았고,  
은지는 갑자기 맡겨진 커다란 임무를 버거워하다가  
결국 8월호 신문이 나오지 못했다.

후배 기자들이 보고 있는데  
신문을 펴크내다니...  
체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낀 점이 많은 한울신문 기자들  
이제 열심히 발로 뛰는 기자들의 취재 현장을 가보기로 한다.



## 기자님! 더 물어볼 거 없어요? 2008.10.09

오후 3시 태평역, '명소탐방' 기사를 쓰는 은하와 만났다. 취재할 곳은 분당에 있는 토지 박물관이다. 은하가 사는 태평동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오늘은 취재원에게 드릴 명함을 챙겨왔노라며 웃어보이는 은하! 스스로 길치라고 밝힌 은하는 사진기자 혜빈이가 너무 바빠 함께 오지 못해서 오늘이 혼자 취재하는 첫 날이라고 한다. 토지공사는 지하철역과는 좀 떨어져 있어서 미금역에서 내려 버스를 타야했다. 가는 동안 은하는 길치인 탓에 취재하면서 길을 해맸던 얘기를 해주었다. 그 동안은 취재할 때 박연우선생님이 근처까지 태워다 주신 적이 많았다고 한다.  
“혼자 취재가려니 좀 막막했는데... 언니가 같이 가서 다행이에요!” 하길래 “나도 길치야! 나를 믿지 말아줘!” 라고 답하자 당황하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드디어 도착한 토지공사!  
넓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할까?  
미리 취재원과 통화는 했지만... 어디가 어딘지? 1차로 경비아저씨에게 길을 물어보고 2차로 안내데스크의 이쁜 언니들에게 3차로 토지박물관 앞 인포메이션 담당 언니에게 물어본 후에야 오늘의 담당자 김성갑 학예사를 만나게 되었다.

어린 기자의 취재요청에 처음엔 당황했다는 김성갑 학예사는 은하가 미리 준비해간 한울신문을 보고 아이들이 쓴 기사라는 것에 적지 않게 놀라는 눈치다. 그리고 토지공사 광고에 등장한 태평동에서 온 꼬마기자란 점에서 더 더욱 놀라워했다. 감사기간이라 바쁘셨을텐데 30분 간 토지박물관 곳곳을 돌며 꼼꼼하게 설명해주시고도

“기자님! 더 물어볼 거 없어요?”  
“어...기사 쓰려면 자료 필요한게 있을텐데...” 하시며 준비한 질문이 다 끝난 어린 기자에게 이것 저것 자료도 챙겨주신다.  
귀중한 자료를 한아름 받아오는 기자와 뜻밖의 꼬마 기자의 방문을 받은 취재원 모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다.

## 취재 전 사전 약속은 필수! 2008. 10. 24

노오란 은행잎이 벌써 옹단처럼 깔리기 시작한 길을 따라 찾아간 오후의 금빛초등학교 후문, 한명은 긴머리를 휘날리고, 한명은 짧은 머리를 찰랑이는 두 명의 안경쓴 소녀가 서 있다. 오늘 취재를 나선 지혜와 승민이다. 취재원을 찾아 우물쭈물 거리다 마감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용케 전에 취재를 했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름다운 봉사’ 기사를 쓸 분을 추천 받았다고 하는데... 기사 마감이 목전이라 취재원과의 ‘사전 약속’을 못 한 모양이다. 어찌 예감이 불안하다. 하지만 무대보 두 기자는 예전에도 취재했던 적이 있던 곳이라며 무작정 길을 나선다. 전에 한번 와봤던 곳이라는데... 지혜는 길이 갑자기 헛갈린다. 아직 어린 친구들에게 취재처를 찾아가는 것만도 만만치가 않다. 길을 걸으며 취재원에게 할 질문을 적어보던 두 기자는 골목벽에 걸린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태평동에는 지난 2006년 성남문화재단에서 시행한 벽화미술관 프로젝트로 골목골목 곳곳에서 이렇게 지나며 감상할 수 있는 그림들을 만날 수 있다. 어느 장난꾸러기가 그림에 미키마우스 스티커를 붙여놨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묘하게 어울린다. 승민이와 지혜는 그림에 붙은 미키마우스 스티커를 보고 환하게 웃는다.

“여기 미키마우스 옆에 말풍선을 달아주면 더 재밌는 그림이 되겠다!”



문득 한참 열기였던 팝아트의 어느 작품이 오버랩된다. 근엄한 그림에 더해진 아이들의 상상력! 어느 장난꾸러기의 그림 훼손 정도로만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게 벽화 미술관의 또 다른 장점이 아닐까? 근엄한 미술품에 더해진 어느 개구장이의 미키마우스 스티커가 키치적인 감성과 상상력을 더 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의 감성은 이렇게 길러지는 것일 지도 모른다.

어렵게 찾아간 지역아동센터, 아니나 다를까 약속 없이 찾아간 곳은 너무도 바쁜 시간이었다. 입구부터 “약속하시고 오셨어요?”란 말을 들은 어린 기자들은 갑자기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 마침 전에 취재원을 소개해주셨던 원장님도 자리를 비운 상태, 오늘은 취재가 불가능할듯하다. 지역아동센터의 엄숙 생활복지사 선생님은 취재원을 소개해주려면 취재의 목적과 취재 내용에 대해 알아야 하기에 취재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셨다. 취재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드리지 못한 기자들은 점점 목소리가 기어들어간다. 어렵게 소개받은 취재원은 다음 주 금요일에나 취재가 가능하다고 하니 오늘 취재는 실패! 풀죽은 아이들은 다음 취재를 기약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나왔다. 이번 취재는 실패했지만 지혜, 승민이 모두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것이다.

마감이 지나 이미 박연우선생님께 호되게 야단을 맞고 찾아간 취재처에서 취재에 실패한 아이들은 풀이 죽어 잠시 아무말 없이 걷더니, 이내 길가에 핀 꽃을 발견하고 웃음을 되찾고 노란 낙엽들을 눈처럼 흩뿌리며 다시 깔깔 대고 웃는다. 바람만 불어도 웃음이 나오는 나이인가보다. 이내 기분이 좋아진 아이들은 한울신문에 대한 주변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선생님들은 신문을 무지무지 아끼시는데요.

가끔 아이들은 신문에 낙서도 하고 사람 얼굴에 수염그리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는 낙서 엄청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신문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하하하!!**

“선배 언니들은 이제 명예기자들로 남았는데요...”

저희는 중학교에 가도 명예기자 말고 ... 한울신문 기자 할거예요!!”

방금 취재에 실패한 아이들에게서 기대하지 못한 대답이었다.

어른들은 신문 마감이 늦거나 나오지 못하면 불안해 하는데 반해 취재실패도, 신문 마감을 못 맞추는 것도, 때로는 신문이 발간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이자 경험이 되는 것 같다.

점점 더 진짜 기자가 되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 선배기자들과 함께한 첫 취재현장

2008. 11. 01

신입기자들의 험난했던 이론수업이 끝났다  
그 동안 중간에 그만 둔 친구도 있지만  
다희, 지선이, 소명이, 소윤이, 한주 이렇게 다섯명은  
드디어 취재꼭지를 배정 받게 되었다.  
게다가 그렇게 가보고 싶어하던  
취재 현장에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은 선후배 기자들이 모두 함께  
김성수 선생님이 작업하는 아파트 벽화작업을  
취재하는 현장에 가보기로 했다.

모두가 함께 한 취재현장!  
1기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신입기자들은 선배들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취재를 끝낸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붓과 롤러를 들고 벽화작업을 돕는다.

2기 기자들의 오늘의 느낌은 어땠을까?  
“선배님들이 바로바로 질문내용을 생각해내는 것이 대단했어요!”  
“너희가 이번 취재를 한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니?”라고 묻자  
다희가 “왜 하는지요!”라고 대답한다.  
1기 기자들은 이미 물어본 질문이라며  
“그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그마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벽에 그림을 그리기로 하셨대!”하고 답을 술술 읊어  
내고 신입기자들은 언니들을 감동스런 눈길로 바라봤다.  
평소엔 어리게만 보였던 1기 기자들이  
오늘따라 유난히 어른스럽다.





## 신입기자 소개



### 우리는 트윈스!

쌍꺼풀이 없는 쪽이 언니 소명, 쌍꺼풀이 있는 쪽이 동생 소윤이다. 노래도 잘하는 쌍둥이 자매는 그 동안 교회합창부 일정이 겹쳐서 한 울신문 수업에 자주 참석하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윤이는 시영이가 쓰는 '인물탐방'을, 소명이는 지혜와 승민이가 쓰는 '아름다운 봉사 기사를 써보고 싶다고 한다.



### 청일점 한주

전교부회장이라 학교에서도 유명한 한주는 과학 기사를 써보고 싶다. 유일한 청일점이라 여학생들 틈에서 조금은 목소리가 작아지지만 혼자 꿰뚫어 수업에 참가하면서 취재현장을 누비며 멋진 기사를 쓸 날만을 꿈꾸고 있다.



###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키 큰 지선이는 목소리가 시원시원하다. 키가 커서 언니같은 후배지만 선배 기자들에게 항상 가장 큰 목소리로 인사하는 깽뚫한 후배다. 수업 중에도 질문도 많고 궁금한 것은 그때그때 확인하고 넘어가는 지선이는 나중에 기자교육이 끝나면 은지와 시영이가 담당하는 '인물탐방'에 참여해서,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



### 첫 미션을 성공적으로^^

박연우 선생님의 첫 길 찾기 미션을 유일하게 수행한 다희는 '인물탐방' 기사를 써보고 싶다고 지원에서 밝혔으나 경쟁률이 쎈 쪽이라 지선이와의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아름다운 봉사 기사를 쓰기로 했다. 선배님들을 잘 따르고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혀 선배 기자들의 사랑을 받을 듯하다.



## 눈이 내려요!!

2008. 11. 20

인물탐방을 쓰는 시영이!

오늘은 동네에서 안경점을 하시는 이기선씨를 취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급하게 취재시간이 바뀌고, 취재장소에는 함께 동행할 수 없었다.

시영이는 자주 있는 일인 듯 당황하지 않았다.

취재를 하다보면 약속시간이나 날짜가 바뀌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란다.

요즘은 취재대상을 찾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서

취재를 할 수 있는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취재현장에 동행하는 대신 쌓이도록 온 눈 위를 걸으며

오늘 동행 취재할 2기 후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다.

시영이는 오늘 2기 기자 지선이, 다희와 함께 취재를 나갈 예정이다.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을 꼼꼼히 정리해서  
직접 기사를 써보라고 할거예요!”  
“직접 써보면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언 손을 호호 불어가며 눈사람을 만드는 모습이 천상 아이지만,  
후배기자들에 대해서 만큼은 언니 노릇을 톡톡히 하는 선배기자다.



## 후배들과 다시 찾은 지역아동센터

2008. 11. 27

지난번에 사전약속 없이 무작정 찾아갔다가

취재를 실패한 지역아동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다희와 지선이

두 명의 신입기자와 함께 했다.

후배기자들과 함께 해서 때문일까?

지혜와 승민이는 이번엔 단단히 준비한 모양이다.

미리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님과 통화해서

취재원의 취재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취재 날짜를 잡고,

기관의 홈페이지도 미리 방문해보고,

전화번호와 명함도 챙기고,

취재 시 질문할 내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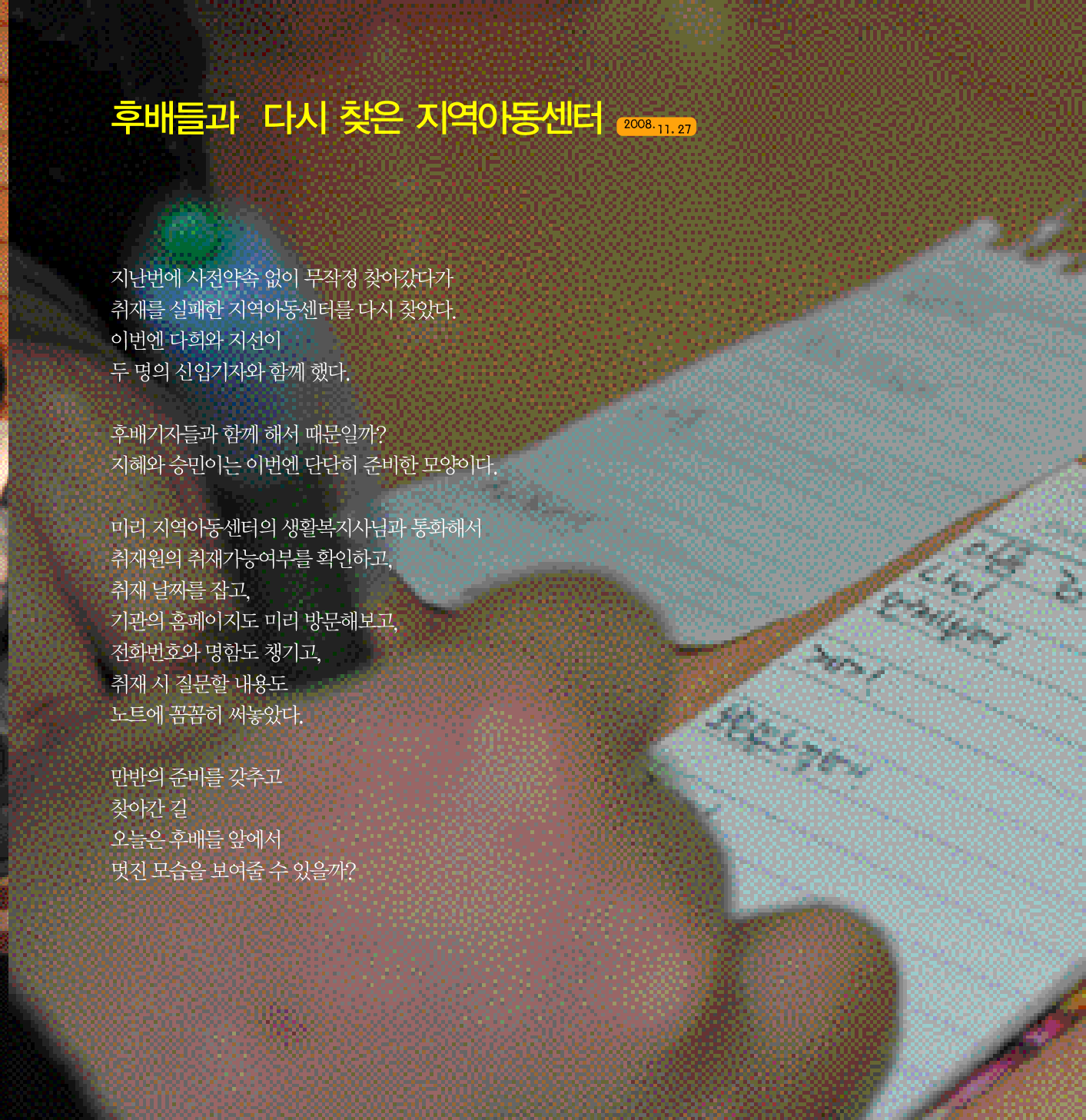
노트에 꼼꼼히 써놓았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찾아간 길

오늘은 후배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오늘은 다희, 지선이까지 4명의 소녀가 금빛초등학교 후문에 모였다. 지난번 취재실패 이후 다시 취재길에 나선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김명환씨를 '아름다운 봉사'에 소개하기 위해서다. 지난번 실수를 계기로 만반의 대비를 한 승민이와 지혜! 지역아동센터에 도착하자 후배들과 함께 질문이 적힌 노트부터 꺼내 질문 내용을 점검한다. 다시 찾은 지역아동센터! 지난번 만났던 엄숙 생활복지사 선생님께서 반갑게 맞아 주신다. 취재원은 수업이 아직 덜 끝난 상태라 잠시 기다리는 동안 선생님이 주신 따뜻한 차 한잔에 몸을 녹이며 다시 한 번 질문내용을 점검하고, 후배들은 언니들의 이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윽고 취재가 시작되고 승민이는 능숙하게 질문을 하고, 승민이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 지혜는 이런 저런 각도로 사진을 찍는다. 다희와 지선은 언니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한다. 취재가 끝나자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께서 떡볶이와 순대를 내오셨다. 추운 날씨에 길을 나선 어린이 기자들에게 맛난 간식은 너무나 꿀맛같은 취재 길의 덤이다!



## 풍경소리를 따라간 봉국사 2008. 11. 29

오늘 은하는 외롭지 않다. 사진기자 혜빈이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봉국사는 아이들이 사는 곳 인근에 있는 절이라 오늘 취재길은 헤매지 않고 바로 찾아갈 자신이 있다. 높고 파이런 가을 하늘은 그림이 따로없다. 하지만 골목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꽤 쌀쌀하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더욱 가까이 들리는 풍경소리가 헨델과 그레텔의 빵부스러기처럼 길을 안내한다. 풍경소리 다음으로 아이들을 맞는 것은 절에 사는 누렁이었다. 꽤 커다란 개였는데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고 다가가 쓰다듬는다.



은하는 절의 역사와 문화재, 주지스님의 성함에서 연세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질문한다. 봉국사의 한기송 교육담당자는 스님의 나이는 비밀이라며 그 외의 질문에는 성실히 취재에 협조해 주셨다. 신문이 나오면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을 끝으로 취재가 끝나자 귀여운 기자들에게 새로 나온 2009년 달력과 요구르트를 챙겨주셨다. 취재를 가면 이렇게 선물도 받고, 맛난 음료수나 과자를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질문하느라 긴장했던 목을 요구르트로 적시고 난 은하와 혜빈이는 절 주변을 돌며 문화재를 비롯한 봉국사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는다.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제법 익숙한 혜빈이는 프로의 냄새가 난다. “언니도 찍어드릴까요?” 오늘 안혜빈기자의 카메라에 담기는 영광을 누리겠다!





시상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놀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놀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놀이...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 놀이...

# 한글신문

2014년 5월 14일  
제100호

## 최정현씨를 만났다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 한글신문

2014년 5월 14일  
제100호

## 최정현씨를 만났다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 한글신문

2014년 6월 14일  
제101호

## 최정현씨를 만났다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 한글신문

2014년 9월 14일  
제103호

## 최정현씨를 만났다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 한글신문

2014년 10월 14일  
제104호

## 최정현씨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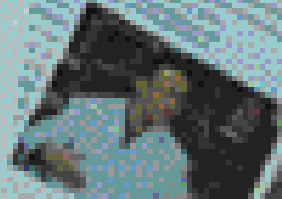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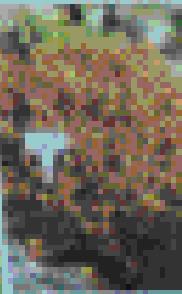
# 한글신문

2014년 12월 14일  
제106호

## 최정현씨를 만났다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최정현씨를 만났다. 그녀는...





## 정이 오가는 야채가게

태평동 골목 어귀의 에텐식품에는 신선한 야채, 생선, 과일들이 소쿠리 마다마다 소복히 담겨있다.

유난히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는 이 가게의 사장님은 푸근한 언변과 선한 웃음이 가득한 이동규씨!

오후 세시가 되면 박스의 야채며 과일들을 소쿠리에 옮겨담으신다. 금새 들려와 싱싱한 물건이지만 주부들의 장시간에 맞춰 세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3개에 천원이던 사과는 4개 천원이 된다.

대부분의 손님들은 이 가게 단골들이다. 이 가게를 자주 찾는 이유를 물으니 손님들마다 한결같이 “사장님이 좋고 물건이 싱싱하니깐.”이라고 대답한다. 곁에서 들으시던 아저씨는 “나 기분이 짱이네!!” 하시며 특유의 환한 웃음을 지으신다.

이렇게 손님이 북적이는 가게도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것은 아니다.

“전주에서 연탄장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기름보일러가 나오는 바람에...”  
“성남에 올라와서 1993년부터 1997년 6월까지 해산물도매 하는데서 일을 하다가 이 가게가 나와서 장사를 시작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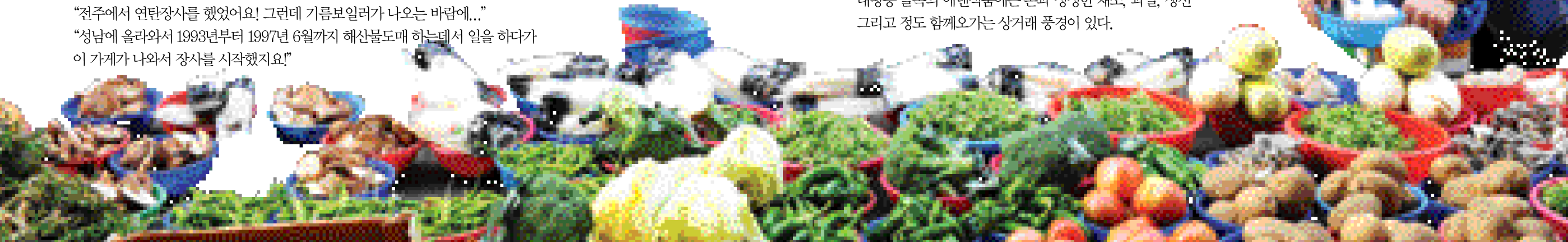
“그 당시 태평동이 전세가 제일 쌌어요! 처음엔 장사가 너무 안되서 고민했는데, 어느날 꿈에 소쿠리가 보이더라구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너시만 되면 소쿠리에 담아 무대기를 쳤더니 그때부터 물건이 팔리기 시작하더라구요!” 하며 허허 웃음을 지으신다.

“손님들이 어제 산 물건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싱싱하다! 하실때가 제일로 뿌듯해요!’ 하시는 에텐식품 사장님은

“날마다 하는 일이니깐 안 힘들어요! 되려 손님이 없으면 힘들지요!” 하시며 오늘도 묵묵히 동태를 토막내신다.

돈은 나중에 주신다며 물건을 가져가는 손님!  
아저씨가 바쁘면 알아서 물건을 직접 담아가는 손님!  
지나는 길에 방울토마토 하나를 그냥 하나 집어먹고 가는 손님!  
물건 사러 왔다가 주인아저씨에게 되려 간식거리를 나눠주시고 가시는 손님!

바코드가 차가운 인식기를 지나가면 ‘디덕’ 하며 계산대에 가격이 찍혀나오는 대형마트의 장보기에는 돈과 물건 만이 오가지만 태평동 골목의 에텐식품에는 돈과 싱싱한 채소, 과일, 생선 그리고 정도 함께오가는 상거래 풍경이 있다.



## 옥상 위의 에덴동산!!

태평동 골목길에서 할머니들의 도토리묵 파티가 열렸다.  
박순눔 할머니가 남한산성에서 직접 주는 도토리로 만든 진짜 도토리묵이다.

"먹어봐!! 내가 직접 주워서 썼어! 가루사서 쪄는 묵이랑 직접 하는 거랑은 안 같아!"  
하시며 나무젓가락을 손에 쥐어 주신다.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도토리묵으로 배를 채우고 옥상정원을 구경했다.  
옥상 위는 머루, 앵두, 포도나무 등 없는 것이 없다.

"여기 도라지꽃도 피었네! 이것도 찍어봐!" 마치 어디서 씨가 날아와서 꽃을 피운 듯  
푸르른 새싹들 사이로 수줍은 보라색 꽃 하나가 얼굴을 내밀었다.

옥상 위에 있는 또 하나의 옥상! 위태로운 계단을 사이로 또 하나의 옥상이 있다.

"구두 신고 올라가면 위험해! 여기 내 신발 신고 가!" 하시며 신을 벗어주신다.

아슬아슬 올라간 또 하나의 옥상에는 길푸른 파대 위에 소복이 쌓인 꽃들이 난초처럼 펼쳐있고  
파가 심어진 화단 앞으로 탁 트인 성남이 한 눈에 들어왔다.  
손톱만큼 작아진 집들을 내려다보니 하늘에 오른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태평동의 옥상에는 푸르름이 숨쉬는 에덴 동산이 있다.







**태평동 어귀의 송정슈퍼,  
멋드러지게 자란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열었다.**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는 검붉은 포도송이들..... 문득 이 슈퍼의 주인이 궁금하다. 사진 찍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슈퍼주인 아저씨는 도시가 개발될 때부터 태평동에 살고 계신 75세의 김재만 할아버님이다. 70세에 오토바이로 제주도 여행을 2번이나 하셨고, 지금도 맥주 한박스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대단한 체력의 소유자이신 할아버지께서는 향수를 안 뿌리시고는 외출을 안하신다는 멋쟁이 노신사시다.

도시에서 마을 어귀의 슈퍼는 과거 시골의 우물가나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모여드는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다.

슈퍼 앞의 너른 평상에서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고 서로의 소식과 정보를 교류한다. 때문에 김재만 할아버지는 동네에 모르는 소식이 없다.

서울에서 성공한 자식들 자랑을 늘어 놓으시는 할아버지.  
혹시 자식들을 따라 이 곳을 떠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봤다.

“왜 떠나?”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포도 익으면 먹으러 놀러와!”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손녀처럼 말을 건네신다.

태평동 어귀어귀 마다 익어가는 포도, 호박, 고추들 만큼이나 태평동 사람들의 마음도 여유롭고 푸근하다.



영장산 만난 다섯분의 할아버지!



**태평동에는 오랫동안 이웃하며  
함께 웃고, 울고, 늙어가는 벗이 있어 더욱 푸근하다.**

추석 전 영장산 정자에서 만난 다섯 분의 할아버지!  
사진 한 컷 찍어도 될까요? 하고 묻자 “나 이렇게 서있는게 좋겠소? 아님 앉아 있는게 좋겠소?” 하시며  
스스럼 없이 이방인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해주신다.  
“이거 아이들 신문에 나오는 건가?”  
“일전에 아이들이 취재해가지고 가던데...” 한울신문 기자들이 다녀갔었던 모양이다.

1969년도에 이주해오셔서 태평동에서 40년을 사셨다는 할아버지들은 각각 광주, 평안도, 제주도가  
고향이다. 태평동은 아직 재개발의 손이 많이 닿지 않아 40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이웃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다. 고향은 다르지만 이곳 태평동에서 40년을 함께 하면서 또 하나의 고향이 된 태평동!  
함께 늙어가는 벗이 있는 곳! 태평동에는 40년을 함께 한 친구들이 있다.  
태평동에는 오랫동안 이웃하며 함께 웃고, 울고, 늙어가는 벗이 있어 더욱 넉넉하다.



골목길을 떠나는 날

한울신문 사진기자 헤빈이 엄마 **이금우씨!**

다음주면 아랫동네로 이사를 간다.  
 멀리 이사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태평동 윗동네에서  
 아랫동네로 이사가는 것뿐인데,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것이 좋기만하지는 않다.  
 오랜동안 이웃하고 살아온 할머니들 곁을 떠난다는 것이  
 못내 서운하다.  
 골목길을 맞대고 다닥다닥 이웃한 집들이 늘어선 태평동!  
 그래서 옆집에 숟가락 숫자까지 알만큼 이웃과 친한 이 곳에 오래 살다보니  
 퇴근하고 집으로 갈 때마다 집 앞에 나와 앉아계시는 할머니들이  
 한마디씩 건내는 그 정이 그리울 것 같다.  
 “처음 시집와서는 골목을 지나갈 때마다 매일 앉아계시는 할머니들이  
 한 마디씩 거드시니깐 시어머니 같고 너무 싫은거야!”

“그런데 오래 살다보니 정도 들고,  
 할머니들이 아이들 자라는 것도 봐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챙겨도 주시고,  
 말한마디라도 건내시고 하셔서...  
 막상 이제 이사가려니깐 너무 서운하네”

“디들 이제 우리 어머니 같아!”  
 주중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시간의 기록’ 사진 활동도 하고,  
 주일에는 교회도 다니고 바쁘지만,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솜씨를 부려본다.  
 떡도 하고, 잡채며, 홍어무침도 푸짐히 준비한다.  
 그 동안 정든 이웃어른들을 대접하려는 이금우씨의 마음이 참 곱다.  
 옆집 사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인 요즈음 느껴보기 힘든 정이  
 태평동에는 있다.





## 태평동의 가수 할머니들

폭폭 찌는 무더위!! 하지만 해가 살짝 기울어 그림자가 지기 시작하면 태평동의 골목길을 휘감아 도는 바람은 천연 에어컨이 된다. 점심때가 지나고 그림자가 골목길을 길게 드리우면 집안에서 더위를 피하시던 할머니들이 한두분씩 집 앞에 자리를 깔고 나오신다. 순식간에 골목길은 할머니들의 마실터로 변하고 오늘은 특별히 이사가는 헤빈이네서 준비한 떡과 음식들로 더욱 풍성하다. 시원하게 맥주 한잔을 드신 오화자 할머니, 가수 뽑치는 솜씨로 멋지게 가락을 뽑아내신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노래 솜씨에 반하셨겠어요?”  
“우리 신랑도 노래 잘했어!!”  
“예전에 우리 부부가 솔단지랑 냄비 꽤나 타왔어!!”

오화자 할머니의 가락에 장단을 맞추시던 은오목 할머니, 언제부터 태평동에 사셨는지 여쭙봤다.  
“오래됐지!! 여기 집 하나도 없을때 왔어!! 그때 그 집이야 이 집이!!” 하시며 대문벽을 쓰다듬으신다. 손길에 파스함이 전해온다.

여기 옆집이랑 이이, 그리고 이이 다 같이 이사왔어! 계속 같이 살았어!  
“이 동네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어!”  
40년의 세월을 함께 한 집 앞에서 할머니는 든든한 듯, 오래 함께한 이웃을 한분씩 소개해주신다. 나와 더불어 나이들어가는 정든 집은 돈으로 따질수 없는 재산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태평동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지켜 본 빨간 벽돌집과 정든 이웃이 있다.





꼼꼼한 여학생들 위주의 한울신문과 달리  
 한울영상뉴스는 개구장이 남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매일 각자가 마감을 지켜 기사를 써야 하는 신문과 달리  
 뉴스는 함께 이야기를 만들고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모두가 함께 공유한다.  
 덕분에 때로는 싸우기도 하지만  
 더더욱 친해진 한울영상뉴스 친구들!

젊고 활기찬 광대현선생님처럼  
 자유로운 분위기의 한울영상뉴스 아이들은  
 학원 일정 때문에 수업을 참가 할 수 없을때면  
 광대현 선생님이 일하시는 늘봄 사무실로  
 시간 날 때 마다 찾아와서 편집과 촬영을 배우고 간다.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는 일임에도  
 광선생님은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신다.  
 그래서 인지 한울영상뉴스는 기자들의 초대로 상영회를 보러 왔다가  
 영상을 배우고 싶다면 찾아오는  
 친구들이 하나, 두울 .... 늘어간다.



## 꼭쌌! 꼭쌌!! 꼭쌌!!!

2008.08.07

8월 7일 오후 2시 금빛초등학교 기자실에서 한울영상뉴스의 첫 모임이 있었다.

한울영상뉴스 기자 총 신청인원은 10명 이었으나 방학이 되면서 신청자와 연락이 수월치 않아서 부득이 연락이 되는 4명만 참석하게 되었다.

이제 6학년이 되는 아이들은 방학 때 학원 일정 등으로 더 바쁜 하루를 보낸다.

지난번 오리엔테이션 때 형준이의 의견대로 학원일정을 피해 오후 2시로 약속을 잡았지만

참석율은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진지한 여학생 위주의 한울신문과는 다르게 4명의 남학생이 모인 한울영상뉴스는 시작부터 활기가 넘친다.

“꼭쌌이라고 불러줘~!”

부르기 쉬워서 일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꼭쌌, 꼭쌌, 꼭쌌하며 친근하게 광대현선생님을 부르며 질문 공세를 퍼붓는다.

기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남학생들은 벌써부터 카메라 감독을 하겠다고 난리다.

아무래도 나중에 오디션을 봐야할 것 같다.

먼저 오늘은 간단한 설문으로 아이들의 욕구와 관심방향,

그리고 수업 가능날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식은 축구소년이다.

“선생님 우리 뭐 찍어요?”

“뭘 찍어볼까?”

“축구하는 영상이요!  
축구하다가 갑자기 축구공이 괴물로 변해요!”

못말리는 상상력이다.

설문지를 보니 건우와 형준이는 학교 영상반 활동을 하고 있어 학교 조회시간에 캠코더를 다뤄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친구들이 저보고 영상이래요!”

“저는 월요일날 찍고, 형준이는 토요일날 찍는데... 형준이가 잘못 찍으면 친구들이 저보고 잘못했대요!”

건우가 억울한 듯이 하소연한다.

아무래도 오늘 모인 친구들이라도 가능한 시간으로 수업 일정을 잡아야 할 듯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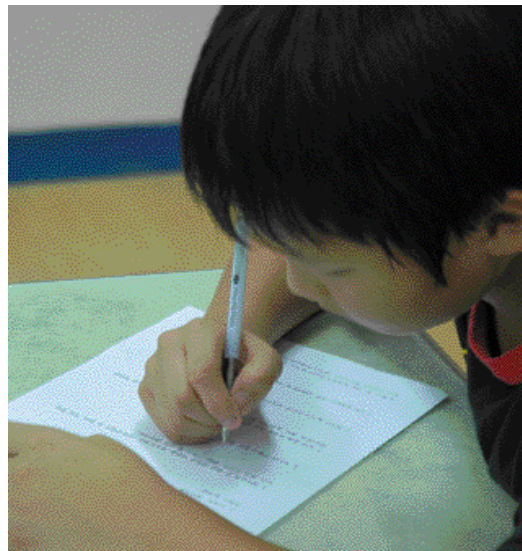
방학 전에 한울영상뉴스에 대한 공지가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아이들의 참여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우선은 오늘 모인 건우, 형준이, 상린이, 경식이와 지난번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종원이까지

5명의 아이들과 일정을 맞춰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한울영상뉴스 활동에 대해 궁금하실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한 안내장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끝으로 오늘의 모임을 마쳤다.





## 장비를 소중히 2008.08.14

오늘은 아이들이 그토록 원하던 캠코더를 다뤄보는 날이다.  
오늘 새로 온 준호와 형준이 건우, 종원이는  
서로 먼저 캠코더를 촬영해보겠다고 난리다.  
교실 안은 금새 어수선했고  
무엇때문인지 빠져버린 준호는  
청소함 안에 숨어서 나올 줄을 모른다.

준호를 달래느라 곱씹이 진땀을 빼는 동안에도  
다른 아이들은 서로 찍고, 찍히며 촬영을 해보느라 여념이 없다.



### “배터리는 캠코더의 밥이야!”

“너희도 배고프면 공부나 운동을 할 수가 없지?”  
“캠코더도 마찬가지야 배터리가 없으면 촬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촬영 담당은 반드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해!”  
“그럼 테잎은 무슨 역할을 할까?”  
“머리! 뇌요!”  
“맞아!”  
“자...그럼 이 뚜껑은 무슨 역할을 할까?”  
“우리 눈 감고 있으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 녀석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  
이렇게 캠코더의 각 부분을 신체와 비교해서 설명해주니 아이들의 이해가 빠르다.  
“뷰파인더는 이 이상 더 돌리면 부러져 버려!!!”

### “너희들도 폭력은 싫지?”

개구쟁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인다.  
“캠코더도 마찬가지야!! 힘으로 다루면 망가진단대!!”  
우리 즐겁게 영상을 할려면 장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보호해주고 함부로 다루지 말기로 약속하자!  
막상 서로 촬영해보려고 다투던 친구들도 배터리와 테잎을 캠코더에 끼워보는 실습을 하자  
서로 먼저 해 보라고 미룬다. 조심조심 배터리를 끼우고 딸깍하는 소리가 나기를 기다린다.  
삼각대를 세우고 촬영준비가 끝나자 차례를 미루던 아이들은 온대 간대 없고  
서로 먼저 촬영해보겠다고 이수라장이 된다.  
캠코더로 바라보는 세상이 마냥 신기한 듯 아이들은 집에 갈 생각을 않는다.  
수업이 끝난 후 종원이는 메모리가 부족하다며 하소연 했던 디카를 꺼냈다.  
카메라 기능도 더 공부하고 멋진 포즈로 친구들의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본다.





## 영장산 촬영 2008.08.21

첫 야외촬영이 있는 날이다.  
 전 시간에 미리 촬영 연습도 해보고  
 콘티도 짜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왔지만  
 막상 밖으로 나오니 촬영보다 게임에 더 들뜬 아이들!!

오늘의 촬영은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는  
 '1박 2일'의 컨셉이다.  
 영장산을 마라톤 한 후  
 4통의 물 중 하나를 선택해 마시는데  
 그 중 2통은 소금물인 것이다.  
 누가 걸릴지 모르는 소금물 벌칙!!

아이들은 촬영임을 잊고  
 실제 마라톤 준비를 하고,  
 리얼한 연기를 위해서라며  
 슈퍼에 들러 소금도 샀다.

오늘의 소금물 벌칙은 누구에게 갈 것인가?

### 오늘은 신나는 야외 촬영!!

신난 형준이와 건우가 광쌤이 근무하는 늘봄 사무실로 들이 닥쳤다.  
 경식이와 준호는 금빛 초등학교 정문에서 만나기로 했다.  
 현준이와 건우는 광쌤과 금빛 초등학교로 걸어가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유치원때부터 단팥이었다는 둘은 이번 방학 때 처음으로 서로 다른 학원을 다니게 되어 많이 아쉽단다.  
 아이들의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보니 어느새 금빛 초등학교 정문에 다다랐다.  
 경식이와 준호를 만나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영장산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오늘 촬영 소품을 사기 위해 길가의 마트를 들렀다.  
 형준이가 소금도 사야한다고 한다.  
 이번 촬영의 컨셉은 1박 2일의 복불복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금물 벌칙을 하려면 소금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마라톤에서 지는 사람은 소금물 한 통을 벌칙 벌칙 마셔야 한다니....

### 소금물을 마시지 않으려면 촬영보다 마라톤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늘봄 사무실에서 영장산 까지는 꽤 가파른 길이다. 무더운 여름 땀이 줄줄 흐르는데도 아이들은 복불복 게임을 할 기분에 들떠 그 가파른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간다.  
 전 시간에 미리 촬영 콘티도 짜고 촬영연습도 미리 해보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막상 야외로 나오니 아이들은 촬영보다는 게임에 들떠 있다.  
 어느덧 촬영지에 도착하고 오늘의 촬영 담당인 경식이가 캠코더를 설치한다. 오늘의 출연자들은 곽쌤을 포함한 경식이, 형준이, 건우다.  
 셋은 비상한 각오로 흡위에 그려진 금박에 일렬로 서서 경식이의 '요이땅' 소리에 맞춰 영장산 계단 길을 뛰어 올라갔다.

경기는 영장산 계단길 산책로를 돌아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1등은 생수통 4개 중 먼저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물론 이미 그 전에 미리 4개 중 2개의 생수통에는 소금을 잔뜩 부어서 짜디짠 소금물을 만들어 놓았다.  
 아이들이 소금을 들이부는 농도로 보아 이 더운 여름에 벌칙이 걸리는 사람은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 더운 여름에 왜 하필 이렇게 힘든 촬영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아이들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마냥 즐겁다. 1등은 준호다! 하지만 게임의 특성상 1등을 해도 생수를 잘못 고르면 소금물을 마실 수도 있다. 떨리는 손으로 한 사람씩 생수통을 고르고...  
 소금물 벌칙에 걸린 사람은 곽쌤과 준호!  
 이미 소금물의 농도를 확인한바 있는 둘은 가위바위보로 한명만 마시는 장면을 촬영하기로 합의한다.

### 가위! 바위! 보!!! 결과는 곽쌤의 패배!

아이들은 일제히 환호를 부르며 소금물을 들이킨 곽쌤은 3초도 못 버티고 허공에 물을 뿜어냈다.  
 소금물은 빛을 받아 허공에서 반짝거리고...  
 아이들은 영장산이 떠나가라 하하하하 웃어대고...  
 곽쌤의 얼굴은 일그러진다.

8월의 무더위에 영장산을 한 바퀴나 도는 촬영을 마친 한울뉴스팀은 모두 땀으로 흠뻑 젖었다.  
 올 여름 영장산에 물놀이 공원이 개장했다.  
 촬영을 마치고 내려온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신발을 벗고 물놀이장에 발을 담근다.  
 빠알간 파라솔 아래 그늘에서 휴식도 취하고, 신나게 물놀이도 하며 노는 동안에도 누군가는 반드시 카메라와 캠코더를 번갈아가며 들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촬영해본다.  
 육체적으로 힘든 촬영이었는데도 아이들 스스로 짠 시나리오라서 그런지 모두 불만없이 촬영을 즐겼다.  
 다만 마라톤에 소금물까지 마신 곽쌤은 많이 힘드셨을거다.



## 보충수업 2008.0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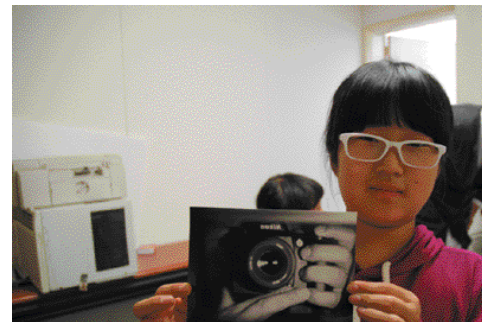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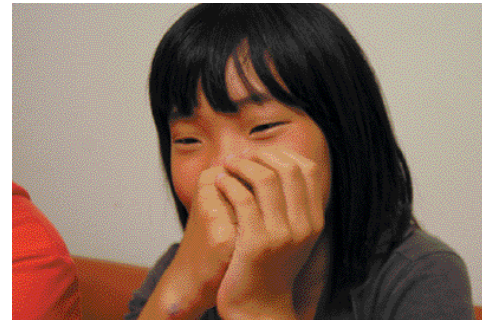
다른 친구들은 학원일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진영이와 형준이만 늘봄사무실을 찾았다.  
 학원수업으로 수업을 빠질 수 밖에 없는 친구들은 콧집이 있는 늘봄사무실로 학원이 끝나고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보충 수업을 하러온다.  
 다만 30분이라도 콧집과 함께 장비도 만져보고 촬영연습도 해보고 간다. 누가 시킨것도 아닌데....

어느새 콧집이 있는 늘봄사무실은 아이들의 즐거운 놀이터가 되었다.  
 둘이 신나게 촬영도 하고 모델도 되어보고 하다가 형준이는 수업 중에 학원에 가고, 혼자 남은 진영이는 그 동안 수업에 오지 못해서 배우지 못했던 촬영법부터 차근히 다시 배우고 친구들이 찍은 영상산 영상을 감상했다.  
 영상을 보기전에는 **“구려요!!”** 하며 친구들이 찍은 영상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진영이는 막상 영상이 시작되자 모니터 속으로 들어갈 거 같다.  
**“전에 운동회 찍은 영상보다는 훨씬 나아요!”**  
 아이들에게 늘봄 사무실은 집에서 먼 곳이다.  
 원래 금빛초등학교 기자실에서 수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개학 후에는 공간이 없어서 늘봄사무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업시간이 지났는데 혼자서라도 배우겠다고 집과 먼 늘봄 사무실까지 수업을 들으러 찾아오는 친구들이 콧집은 고맙기만 하다.



## 왈가닥 소녀들이 찾아왔어요! 2008.10.18

남학생 뿐인 한울영상뉴스 수업이 한참 진행되던 중 여학생 4명이 한울영상뉴스에 참여하고 싶다고 늘봄 사무실을 찾았다.  
 방학 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도 있고, 최근 들어 한울영상뉴스에 대해 듣고 찾아온 친구도 있다.  
 남학생들은 이미 이론 수업은 마친 상태라서 여학생은 따로 기본 진도를 나간 후에 함께 수업 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주희, 은빈이, 혜정이, 하나는 한참 사춘기인 왈가닥 소녀들이다.  
 우선 기본 설문부터 한 후 수업을 진행했다.  
 첫번째 자기 소개를 위한 참과 빵 게임.  
 자기에 대해 3가지를 말하는데 그 중 하나는 거짓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것이 거짓말인지 맞추는 게임이다.  
 한참을 망설이던 주희가  
 “저는 빅뱅보다 샤이니가 좋아요!”라고 소리친다.  
 다들 웃는거 보니 주희는 ‘빅뱅’ 과 ‘샤이니’ 두 그룹 중 하나의 광팬임이 틀림없다.  
 다음은 사진으로 이야기 만드는 수업을 진행했다.  
 80여장의 다양한 흑백사진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시간!  
 여학생들답게 꽃, 강아지 등의 이쁘고 귀여운 사진이 가장 먼저 선택되어졌다.  
 얼른 이쁜 사진을 손에 넣긴 했지만  
 이야기는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다.  
 어렵사리 꽃을 꺾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만들지만  
 마무리는 되지 않고 이야기는 미궁으로 빠져버린다.  
 좀 더 연습이 필요할 것 같다.





## 4컷 촬영실습

2008. 10. 25

“너희들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가 뭐야?” 곽쌤이 묻는다.

“라따뚜이요!!!”

“그래! 그 영화의 배경은 레스토랑, 인물은 쥐, 사건은 쥐가 요리를 하는것이지?”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담은 4컷의 영상을 만들어보자!!”

“선생님 영화는 몇 컷이에요?” 하나가 묻는다.

“몇 컷 일거 같은데?”

“100컷? 1000컷?” 선생님이 고개를 가로 젖자... 하나는 점점 더 궁금하다.

“몇 만컷”

“몇 만컷 했는데 겨우 1시간 30분 밖에 안되요?” 눈이 토끼처럼 커진 아이들!!

“우리가 찍는 영상은 1초에 24장의 사진이 담겨진 거야!” 곽쌤이 부연 설명을 하자

“1초예요?” 하며.... 다시 한번 캠코더를 들여다 본다.

“셋이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촬영해 봐!”

“선생님 따로따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평가해주세요!!” 중문이는 자신있나 보다.

“뭘 해야하지?” 하나가 고민에 쉽사인다.

항상 가장 어려운 부분인것 같다.

영상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 지는 한울영상뉴스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 “상상력에 엔진을 달아 봐!!!”

“원래 인공위성도 과학자가 아니라 만화가가 먼저 생각했던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황당한 상상들도 언젠가는 현실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우리가 인공위성이 나오는 영상을 찍을 수는 없지만, 4컷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만들면서 실력을 쌓아가면 우리도 언젠간 더 큰 상상력을 담은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날도 올 거야!”

주희는 고민하는 듯 노트에 4컷을 끄적거리리는 듯 싶더니

어느새 노트에는 곽쌤의 얼굴이 그려져 있다.

### 30분의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

남자주인공이 길을 걷다가 넘어져 코에 반찬고를 붙이는 영상을 4컷에 담겠다는 아이들!!

“그럼 우리 리허설 해 볼까? 너희 리허설 알지?”

가수들도 공연 전에 리허설 하잖아!!”

“맞아요!!! 저 샤이니 리허설 백번 넘게 갔어요!!” 주희와 하나는 샤이니의 광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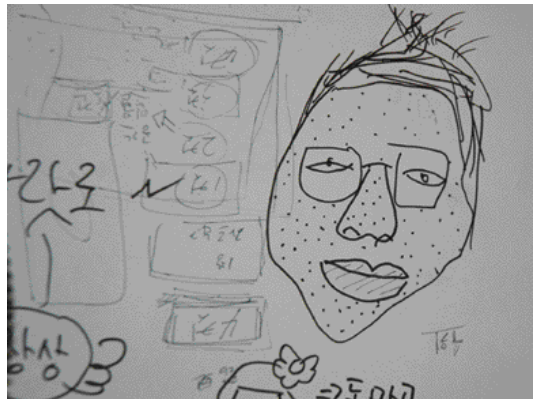
주인공은 곽쌤! 리얼하게 넘어지라는 주문!! 코에 반찬고를 붙이라는 주문에도

곽쌤은 불만 없이 행동에 옮기신다.

특별 할 것 없는 4컷의 이야기인데, 직접 촬영한 것을 보는 아이들은 신기하기만 하다.

“아...이거 다시 찍어야겠어요!!”

재촬영에 들어가고, 곽쌤은 오늘 몇 번이나 더 넘어져야 했다.



## 개성있는 기자증 사진 촬영 2008. 11. 19

상영회가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다.  
 마무리 영상 작업에 한참인 아이들!!  
 오늘은 편집 작업 중간에 상영회 날 받을 기자증 사진을 촬영했다.  
 여학생 위주인 한울신문과 달리 이제 은빈이만 홍일점으로 남아버린 한울영상뉴스!!  
 개구장이 녀석들답게 기자증 사진도 개성있게 촬영한다.  
 꺾임 사진도 아이들이 직접 촬영해본다.  
 꺾임 역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개성있는 표정으로  
 “찰칵!!”



## 영상뉴스 촬영 2008. 11. 26

오늘은 영상뉴스를 촬영하는 날!!  
 그 동안 촬영한 기사들을 소개할 뉴스촬영!  
 아나운서는 미소가 싱그러운 홍일점 은빈이가 맡았다.  
 작가 형준이와 진우는 글을 정리하고, 경식이와 경문이는 촬영을 했다.  
 경식이의 '레디 액션!' 에 맞춰 은빈이가 대사를 읽어본다.  
 '다시!!'  
 경문이는 너무 글만 쳐다보다며, 카메라를 쳐다볼 것을 주문한다.  
 하지만 대사가 너무 길어서 외우기엔 너무 벅차다.  
 다시 한번 촬영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진영이가 카메라 앞에서 은빈이를 웃겨서 NG,

은빈이 발음이 꼬여서 또 NG  
 촬영모습을 형준이는 옆에서 열심히 찰칵!! 찰칵!!!  
 이번엔 형준이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서 NG!!!

결국 진영이와 형준이는 촬영장에서 퇴장을 당했다.  
 계속 되는 NG 이후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냈다.  
 실제 뉴스에서도 아나운서가 카메라를 보며 읽을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이다. 텔레프롬프터를 이야기 하는 것인가 보다.  
 고가의 기계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튼튼한 두 팔이 있지 않은가?  
 아이들은 대사를 크게 써서 들어보이고 은빈이는 카메라를 보며 자연스럽게 읽어본다.  
 그런데 이번에도 NG! 대사가 적힌 종이를 보며 읽느라 은빈이의 시선이 점점 아래로 내려간다는 것이다.  
 이번엔 은빈이가 대사를 읽음과 동시에 종이를 든 종원이가 조금씩 종이를 올려준다. 그래도 계속되는 NG!  
 어느 틈에 은빈이의 꼬였던 발음도 조금씩 풀리고  
 대사도 술술 외워진다.





# 한울영상뉴스 상영회 2008.11.30

상영회는 오후 5시!

30분 전 금빛초등학교 3층의 한 교실

겨울의 오후는 벌써 어둠이 내려 앉고 있다.

상영회 준비로 분주한 아이들!!

은빈이와 형준이는 교실 칠판에 미리 준비해 간 한울영상뉴스 상영회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종문이는 교실 칠판을 꾸밀 풍선을 분다. 경식은 손님들께 드릴 과자와 차를 접시에 담고,

종원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걸레질을 하고 또 한다.

진영이는 학교 곳곳에 한울상영회 포스터를 붙이고 돌아왔다.

그 산만했던 아이들은 어디에 간 것일까?

미리 역할을 정해준 것도 아닌데, 알아서 할일을 척척 찾아서 한다.

개구쟁이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참 기특했다.

자 이제 손님들을 맞을 준비가 끝난 것 같다.

**“한울영상뉴스~  
하나 둘 셋~ 화이팅!!!!”**

곽쌤과 아이들의 우렁찬 화이팅을 시작으로 손님들이 한 명씩 교실로 들어오더니 어느새 자리가 꽉 찼다.

## 8월 부터 시작한 4개월 간의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 이야기, 학교이야기를 담은 영상들!!

부모님들은 그 동안 아이들이 무엇을 하러 학원만 끝나면 늘봄사무실을 찾는 걸까 많이 궁금하셨을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

먼저 김성수 태평동 Art dream 예술감독이 이번 마을사업의 목적과 진행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뒤이어 태평4동 박건화 통장과 최성은 시의원이 한울영상뉴스 상영회를 축하해주셨다.

상영회에 앞서 곽쌤이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 부모님과 친구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가 있는 사진 찍기!’

아이들이 찍은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잠시나마 알아볼 수 있는 작은 체험의 장이었다.

플라로이드 사진 4장을 찍어 이야기가 있는 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10분 동안 첫번째 사진에는 장소, 두번째는 인물, 세번째는 클로즈업,

네번째는 결과를 담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보는 것이었다.

부모님들은 고개를 가우뚱 하시면서도 한 분 두 분씩 플라로이드 카메라를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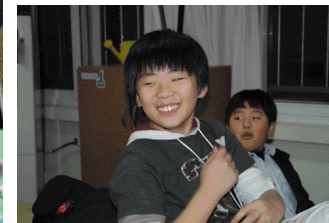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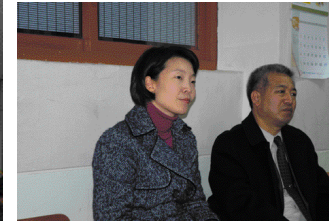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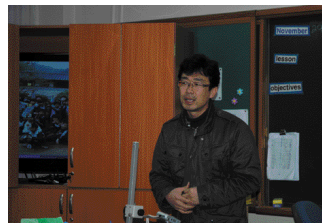
각자가 생각한 장소로 향했다. 조용하던 교실 안이 갑자기 활기를 찾는다.

“이리와 봐!! 이거 한번 찍어보자!!”

여기저기 찰칵 소리와 사진을 구성하는 이야기들로 가득찬다.

은빈이는 자신을 응원온 친구들과 함께,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형준이는 엄마, 아빠가 플라로이드로 사진을 찍는 동안 동생에게 사진 찍는 법을 알려준다.





형준이 아버지가 먼저 발표를 하셨다.

평소 형준이가 수업이 끝나면 어린동생을 챙겨서 함께 집에 왔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수업이 끝난 형의 교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생, 둘이 어색하게 만나는 장면까지 연출하셔서 멋진 사진 이야기를 만드셨다.

평소 한울영상뉴스에서 가장 아이디어를 많이 내는 형준이는 아빠를 닮았나보다!!

진영이 어머니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멋진 제목으로

아무도 없는 복도,

진영이가 고민하는 사진,

계단을 올라가는 사진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멋진 포토에세이를 담으셨다.

다음은 편집을 하느라 시도때도 없이 늘봄사무실을 찾는 종원이의 어머니!!

아마도 한울영상뉴스에서 종원이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다.

종원이가 어머니는 아이들이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한울영상뉴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만드셨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께서 더욱 신나게 즐기셨던 시간이었다.

## 아이들은 10분 이라는 짧은 시간에 멋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부모님이 자랑스럽다!

오늘 진행한 체험수업은 아이들이 수업중에 실제로 해보는 실습과정이다.

아이들이 공부하는 내용을 부모님들이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이다.

## 불이 꺼지고 상영회가 시작되었다.

4개의 영상을 하나의 뉴스로 묶은 형태의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장산, 탁구부 창단식, 수련회, 태평동 체육대회를 담은 뉴스였다.

한울영상뉴스 친구들은 자기 얼굴이 스크린에 나올때면

부끄럽다며 얼굴을 감추면서도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이 싫지 않다.

영상이 끝나고 아이들의 소감 발표시간!! 작가 형준이는 글쓰는게 제일 어려웠고,

곽쌤이 맛있는 것을 사주시는게 제일 즐거웠다고 말해 교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편집을 맡은 진영이는

“자막이랑 슬라이드쇼를 배울때가 가장 즐거웠고, 컷편집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뚝 부러지게 말하는 바람에 모두에게 “미리 연습하고 외운거 아냐?” 하는 의혹을 샀다.

홍일점이 된 아나운서 은빈이는 대사가 꼬일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며

전매특허인 수줍은 듯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김성수 태평동 Art dream 예술감독은 지난 4개월 동안 수고한

경문이, 경식이, 은빈이, 형준이, 종원이, 진영이의 목에 기지증을 걸어주셨다.

목에 건 기지증을 무척 자랑스럽게 꺼내보이며 사진을 찍어달라는 아이들!!

6학년울 코앞에 두고 바쁜 학원 일정으로 중간에 포기한 학생들도 많았지만

오늘 참석 못한 건우까지 7명의 아이들은 바쁜 학원 일정 중간 중간에 짬을 내어

늘봄 사무실로 찾아와 곽쌤에게 보충수업을조르며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기지증을 목에 건 아이들은 기자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더욱 멋진 태평동 뉴스를 만들어 낼 것이다.



# 민들레 홀씨, 태평동에 내려앉다

- 01. 시간의 기록
- 02. 그림마을

Art Dream의 꿈을 간직한  
민들레 홀씨가 태평동에 내려 앉았다.  
한울신문의 후원을 위해 조직된  
한울후원회에서 결의한  
태평동의 문화 공동체 프로젝트!!

사진 동아리 '시간의 기록' 과  
그림 동아리 '그림마을' 이라는 이름으로  
태평동을 문화가 숨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Art Dream의 씨앗을 뿌렸다.

민들레 홀씨  
태평동에  
내려앉다

한울신문 기자들의 어머님들이 주축이된 한울 후원회.  
 아이들로 인해 만나게 된 이들 어머님들은  
 아이들 이야기와 동네 이야기 등 공통의  
 화제거리가 많다.  
 한울후원회의 어머님들을 주축으로  
 태평동에 살며  
 함께 삶의 곁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사진 동아리 시간의 기록이란 모임으로 뭉쳤다.  
 카메라라는 또 하나의 눈으로  
 삶의 터전인 태평동을 담아본다.

한울신문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박연우선생님이  
 사진모임을 지도하기로 했다.  
 박연우선생님은 아트앤컬처에 사진을 연재하는 기자다.

전문 사진기자에게 배우는  
 사진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





# 내사진이 신문에... 2008.07.19

비오는 토요일 아침 10시! 태평4동 노인복지회관 3층. 네명의 아줌마들이 모였다. 한경희씨, 최정란씨, 이연숙씨, 박연우선생님까지 4명의 수다가 끊이지 않는 '시간의 기록' 태평동 사진반!

모두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라 사진 공부 이외에도 공통의 화제가 참 많다.

아이들 이야기,  
한울신문 이야기,  
태평동 소식,

어젯밤 회식으로 늦게 들어온 남편 이야기에 늦둥이 계획까지....

마치 시골마을의 빨래터 마냥 편안하고 소탈한 아줌마들의 수다터!

태평4동 노인복지회관 3층은 그림이 있고, 사진이 있고, 신문이 있고, 커피 한잔과 유쾌한 수다가 있는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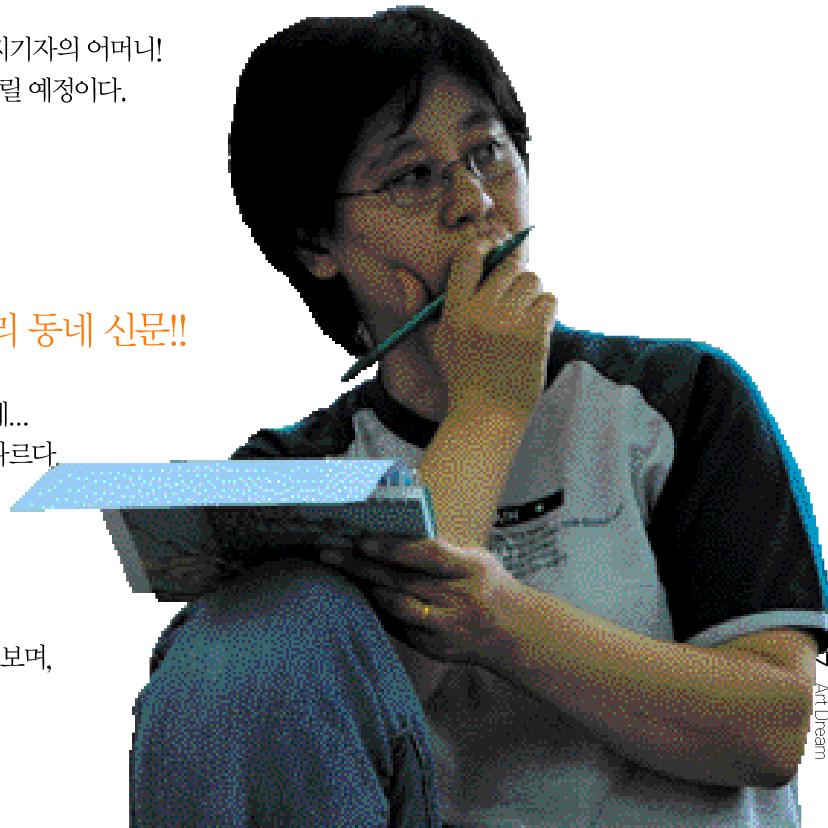
한울후원회 회장님이신 한경희씨는 한울신문 전은지기자의 어머니! 이번 한울신문 7월 호엔 한경희씨가 찍은 사진이 실릴 예정이다.

태평동 콘크리트 틈을 비집고 피어난 이름 모를 풀 한포기를 사진으로 담았다.

유명한 사진가의 사진만 실리는 신문이 아닌

## 초보사진가인 엄마의 사진도 딸의 기사와 나란히 실릴 수 있는 우리 동네 신문!!

그 동안 딸이 만든 신문의 독자로서만 만족해 왔는데...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린다니 감회가 남다르다. 사진에 좀 더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박연우선생님과 함께 사진을 이렇게 저렇게 다시 또 다시 보정해본다. 자판을 누를때 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사진이 너무도 신기하고... 조금씩 작품이 되어가는 사진을 보며, 이게 내가 찍은 사진이 맞나도 싶다.



## “노출은 빛에 드러내는 것을 말해요!”

조리개, 셔터속도, 해상도...아~ 어렵다. 조그만 디지털 카메라 하나 다루는데 이렇게 어려운 원리들이 있었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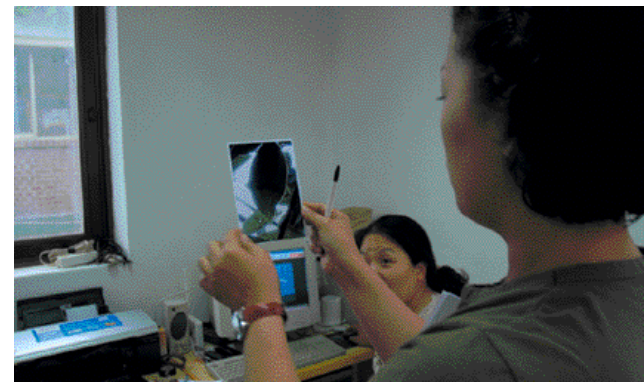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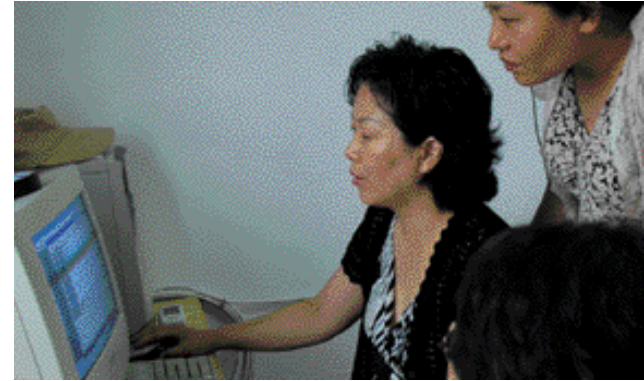
이래서 전문가의 사진은 다른 것일까?

주부들에게는 꽤 어렵게 느껴질만한데 모두들 진지하게 경청하며 머리 사이로 빠져나가는 이론들을 노트 속에 볼펜으로 꺾 꺾 잡아 넣는다!!

“사진은 RGB, 인쇄는 CMYK라고 외우시면 되요!”하는 박연우선생님의 설명에 이연숙씨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구름 사진을 레포트로 뽑아오라는데 그럼 CMYK인가요?”라고 질문하신다. “아니요! 사진이니까 RGB로 선택하시면 되요!” ‘시간의 기록’에서 배우는 사진 이론 수업은 아이들 숙제를 봐줄때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

다들 잊어버리실까 열린 노트를 꺼내서 꺾꺾 메모해 놓으신다. ‘시간의 기록’은 이론수업, 출사, 보정 순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간다.

‘시간의 기록’ 회원들은 지난 시간 배운 이론을 출사를 통해서 실현해보고, 직접 찍어온 사진을 함께 보며 의견도 나누고 보정도 해보면서 사진이 바뀌는 과정을 뿌듯하게 지켜본다. 한대 뿐인 컴퓨터!! 박연우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신 후, 차례를 정해 한명씩 돌아가며 마우스를 잡아본다. 박연우선생님은 인물사진 보정 방법을 시범보인다. 맨얼굴로 찍은 사진이 잡티가 사라지고, 주름이 열리면서 이쁘게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가자들은 마치 마법을 보는 듯한 황홀경에 빠진다.





토요일 10시! 또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동그랗게 둘러앉아 따뜻한 커피 향에 취해 툭툭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도란 도란 이야기 꽃을 피운다.

일정 때문에 못 나오시다가 오랜만에 나오신 혜빈엄마 이금우씨와 전한울후원회 회장인 최성은시의원까지 6명의 엄마들은 오늘날만큼은 소녀의 감성으로 돌아간다. 갑자기 박연우 선생님이 무언가 결심한 듯 외치신다.

**“우리 수청리로 출사가죠!!”**  
**“빗물 머금은 꽃이랑 나뭇잎을 찍어봐요!”**

일정이 있으신 최성은 시의원을 제외한 다섯 분은 박연우 선생님의 차를 타고 수청리로 향한다. 사진 작가들은 자신만의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장소가 하나씩 있는데 박연우 선생님에게 수청리가 그런 곳이라고 한다.

‘시간의 기록’ 참여자들과 이런 감성을 함께 나누고 싶은 선생님!

오늘 박연우 선생님은 **‘꿈꾸는 연우씨’**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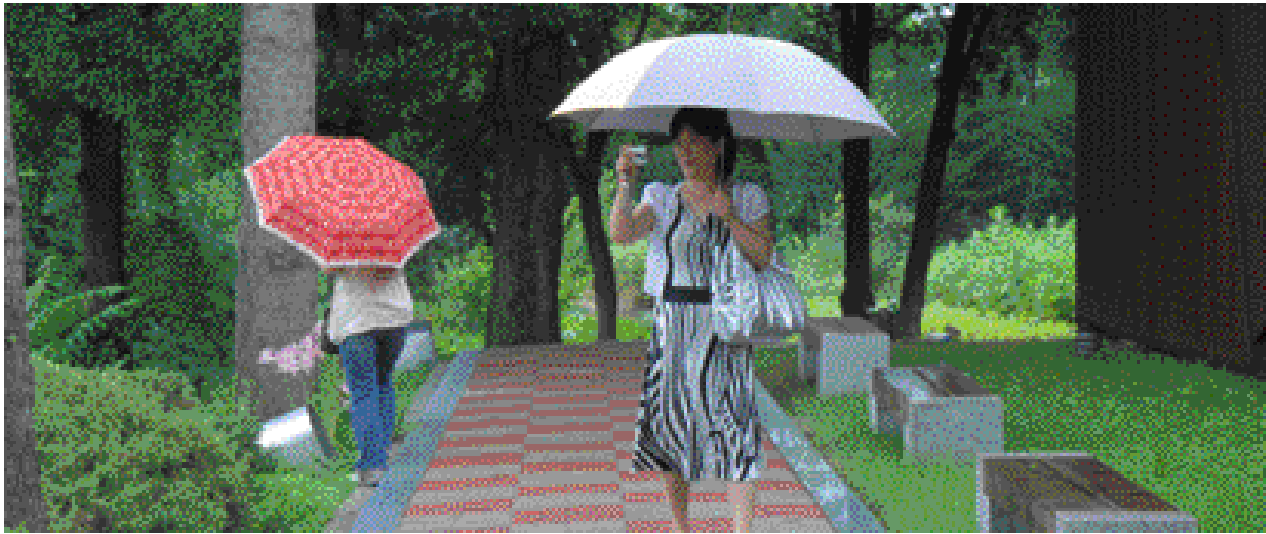
소녀의 감성으로 돌아간 다섯명은 들뜬 맘으로 빗속을 헤치고 달린다. 혜정이, 혜림이 엄마 이연숙 씨는 아직 어린 혜정이가 강과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뭐라고 말해줄까 고민하다가 “한강은 길건 너가 보이지만 바다는 안 보여!!”라고 했다고 한다.

보슬보슬 빗속에서 꿈꾸는 소녀의 감성으로 돌아가 쿵다쿵다하지만 탁 트인 강을 끼며 달리는 차 안에서는 엄마들답게 이렇듯 아이들 이야기가 이어진다. 박연우 선생님이 7월호에 소개한 가족창작무지길 ‘신데렐라’ 공연에서 한울신문 기자들에게 초청티켓을 보내왔다는 소식을 전하자 엄마들은 아이들보다 더 신이난다.

수청리에 가기 전 분원백자관에 들렀다.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도자기에 관한 좋은 정보를 하나라도 더 알려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경청하고 공부하시는 어머니들!! 청화는 코발트색, 철화는 검정색, 진사는 붉은색이며 우리나라 자기는 유약을 바르기 전에 그림을 그린다는 점이 일본이나 중국의 자기와 다른 점이라는 등의 사실을 꼼꼼히 머릿속에 채워넣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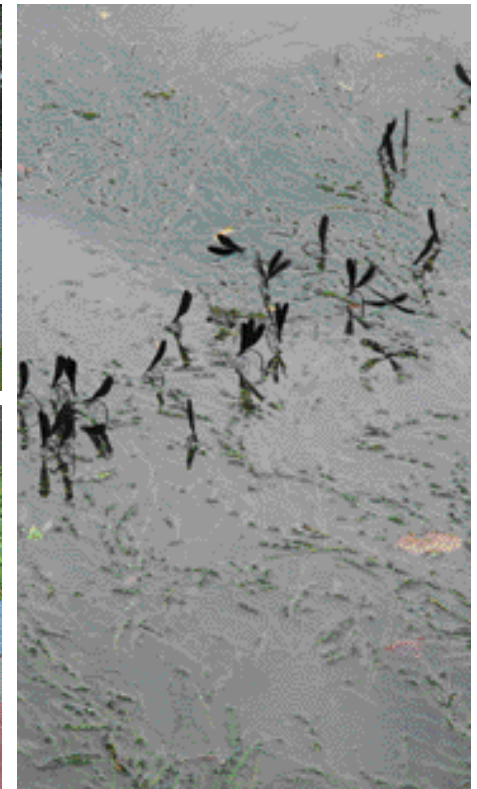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오늘 배운 것들을 이야기 해주리라는 다짐이 진지한 눈빛 속에 가득하다.  
분원백자관은 사진촬영이 가능한 곳이라 어두운 실내 촬영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사진을 찍어본다.

친절한 박물관 직원에게 아이들 보여줄 자료도 한아름 받아들고  
빗물을 머금어 더욱 푸르러지고 청초해진 꽃과 나뭇잎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차를 돌려 찾아간 수청리!  
안개 깔린 수청리에는 어릴적 시골 할머니 집에서 본 자개장처럼 푸르스름하면서도  
새까만 날개를 가진 물잠자리 수백 마리가 얇은 물가에서 팔랑거리며 짹짹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었다.

강가에 우직히 서있는 아름다리 미루나무도 담아보고,  
요정처럼 팔랑이는 잠자리들도 담아보고,  
잊었던 소녀적 감성도 함께 담아 '찰칵' 하고 찍어본다.





## 직접찍어보는 증명사진 2008.08.23

오늘은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해 볼 수 있는 증명사진 촬영법을 배워본다.  
오랜만에 화창한 여름햇빛을 받으며  
이쪽에서도 한번,  
반대편에서도 한번,  
서로가 모델이 되어 활짝 웃는 얼굴로  
사진을 찍어본다.



Art Dream

Art Dream

## 증명사진 편집해보기! 2008.08.30

지난 시간 촬영해본 증명 사진을 포토샵으로 후보정 작업을 해본다.  
막상 증명사진을 찍고 사진 속의 나의 모습을 보니  
지갑 속 젊을 적 사진에 비해 많이 달라진 모습에 많이 서운하다.  
“나 얼굴 쳐진거 봐!”  
“나도 예전엔 이렇게 가름했다고...” 하시며 보여주신 지갑 안에는  
정말 꽃같이 가냘프고 아리따운 아가씨가 환하게 웃고 있다.  
브이라인 턱선은 어느덧 후덕해지고 반달같은 눈에는 세월의 흔적이  
드리워졌지만 대신 예전보다 포근해지고 따뜻한 눈빛의 한 여인이  
사진 속에 자리잡았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래도 젊었을 적 사진과 비교해보니  
세월의 흔적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더 요긴한 후보정 작업!!  
포토샵은 배워도 배워도 어렵지만,  
**점이 사라지고,  
주름이 열어지고,  
혈색이 밝아지는 요술을 사사삭 하고 부릴 때면**  
탄성과 함께 눈이 반짝인다.  
예전의 젊음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쁜 사진 속의 나를 간직하고픈 마음은 누구나 한결 같은 것!  
다들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서 작업에 임한다.  
보정 작업 후의 사진은 만족도가 높다.



바로 프린터로 작업한 사진을 뽑아본다.  
직~지~~익~~~ 지지지직~~~  
요란한 소리를 내며 평소보다 더 느리게 사진을 뽑아내는 프린터!  
모두가 숨 죽여 결과를 기다리고..  
프린터가 사진을 토해내자 다들 얼른 사진을 집어든다.  
최정란씨가 찍은 사진 속에는 왕년에 미인소리 꽤나 들었음직한 한경희씨는 없지만,  
그만큼 예쁜 딸을 길러낸 은지엄마가 그때처럼 환한 미소로 활짝 웃고 있다.



Art Dream

Art Dre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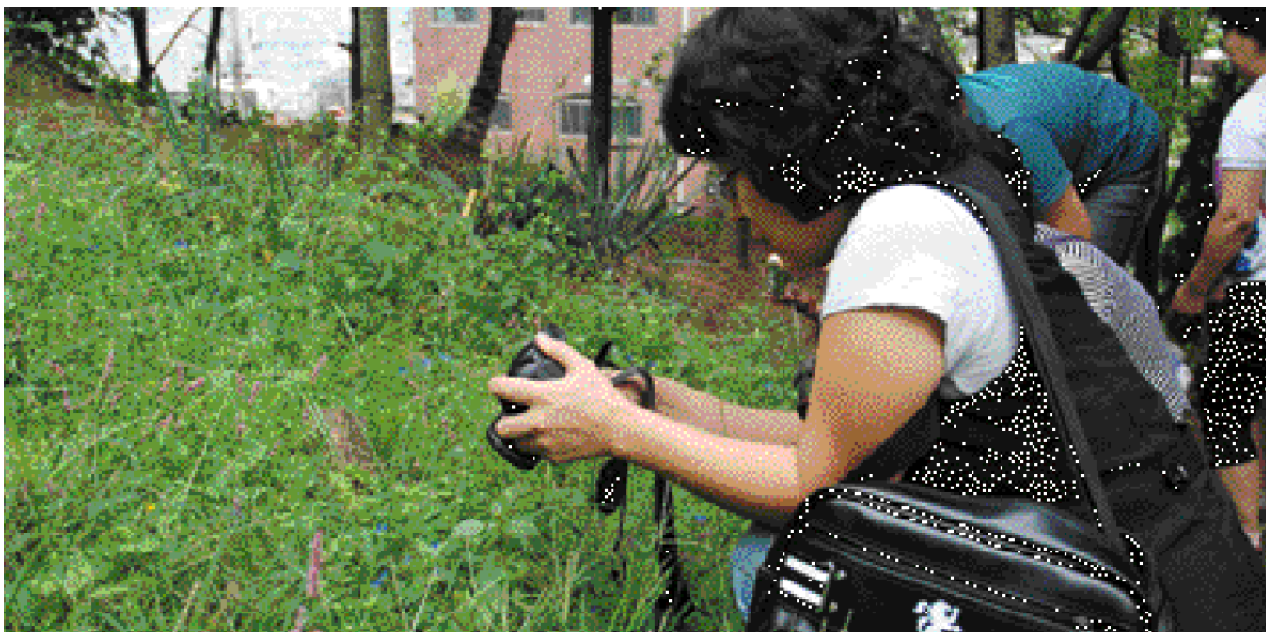
## 영장산 출사! 2008.09.20

태평동에는 태평동 사람들의 휴식처인 영장산이 있다.  
 아이들은 물놀이공원에서 수영도 하고, 어르신들은 정자에서 장기도 즐기신다.  
 여름 불볕 더위가 가시고 서늘한 가을이 오자,  
 시간의 기록 회원들은 도시락을 챙겨 영장산의 푸르른 실록을 담으러 카메라를 들고 뭉쳤다.

비온 뒤라 더 맑고 푸르른 공기!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들꽃과 잎새 하나도 렌즈를 통해서 보면  
 다른 세상에서 온 생명체인냥 신기한 자태를 드러낸다.  
 작은 꽃과 잎새를 찍기 위해 전문 사진가처럼 멋진 포즈로 카메라를 잡아본다.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 바라보니 곳곳이 서서 길을 지나며 볼 때와는 또 다른 세상이 다가온다.

소풍 나온 학생들처럼 등에 가방을 메고, 도시락을 들고 온 영장산 출사!!  
 이번 사진은 '도그 아이' 로 찍어보아야지!!  
 이젠 전문 용어도 제법 입에 붙는다.

**영장산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오늘!**





## 우리동네 출사 -1 2008. 10. 18

숨이차게 언덕을 오르다보면  
어느 순간 가파른 비탈길이 굽어치는 태평동의 골목은  
지형을 타듬지 않고 그대로 살린 것이 특징이다.  
이슬하게 굽어지는 언덕에 들어선 각양 각색의 집들에  
작은 홀 한층의 여유공간에도 푸르른 정원과 텃밭을 기르는  
여유로움을 지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산다.

골목길마다마다 새로움을 간직하고 있는 태평동!  
이곳은 '시간의 기록' 회원들이 사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내가 가장 잘 알고, 나의 삶이 깃들었으며,  
나와 더불어 삶의 곁을 나누는 사람들이 사는 곳!  
가장 익숙한 곳이지만,  
렌즈라는 또 다른 눈으로 바라본 태평동은 또 다른 세계다!  
정겹게도 낯설게도 다가오는  
렌즈 안의 태평동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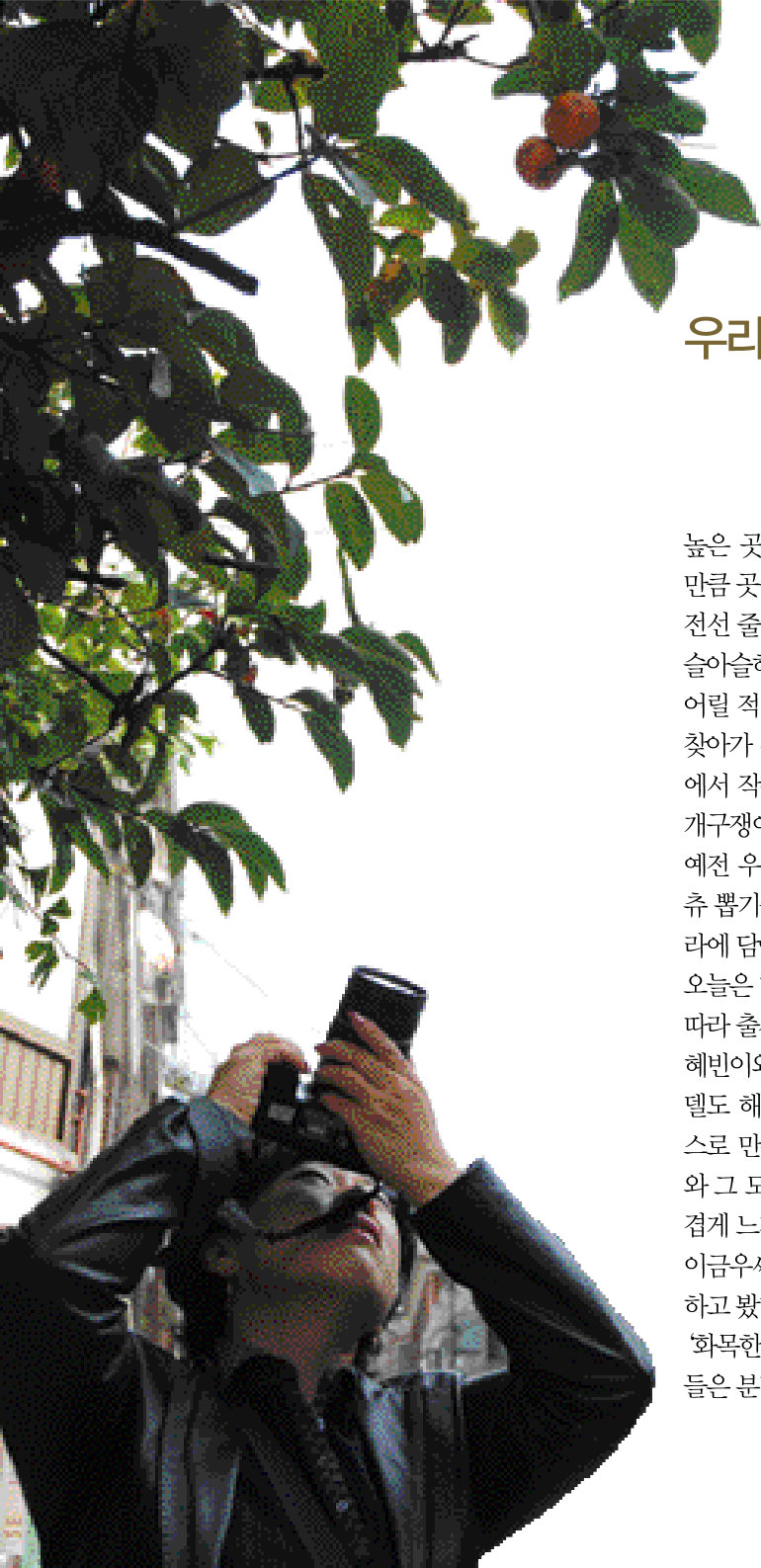


새장 속의 작은새도,  
 따사로운 베란다에 널어놓은 분홍색 이불도,  
 주인앞에 누워 재롱부리는 강아지도,  
 시대극을 떠올리게 하는 슈퍼의 외관도 렌즈로 바라 본 세상 안에 들어왔다.  
 카메라를 들고 나서기 전에는 보지 못 했던  
 우리 동네의 익숙하고도 낯선 풍경이다!

혜빈이 엄마 이금우씨는 오늘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 일정이 겹쳐서 출사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다른 엄마들에게 출사 말미에 바자회에 들르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좀 전까지 정적인 태평동의 모습을 담았던 카메라에 바자회장의 활기참과 생동감이 담기기 시작했다.  
 다른 바자회장과는 달리 시골에서 올라온 우리 농산물로  
 솜씨 좋은 동네 아줌마들이 담근 김치가 불티나게 팔리고,  
 엄마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떡볶이와 꼬치는 아이들의 주문이 넘쳐난다.  
 여기서 모인 수익금은 형편이 어려운 우리 태평동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쓰인다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기분이 좋다.







## 우리동네 출사 -2 2008. 10. 25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본 태평동은 옥상정원이라고 부를 만큼 곳곳에 푸르름이 자란다.

전선 줄 위를 타고 자란 호박 넝쿨은 공중 위에 두둥 아슬아슬하게 작은 호박 하나를 열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예전에 크게 시장이 서던 자리를 찾아가 본다. 지금은 작게나마 남아 있는 시장의 한 칸에서 작은 게임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 오락에 열중한 개구쟁이들,

예전 우리가 했던 추억의 뽑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피카츄 뽑기를 하는 아이들, 시장 생선가게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아본다.

오늘은 한울신문의 유일한 사진기자인 헤빈이도 엄마를 따라 출사에 함께했다.

헤빈이와 엄마는 사이좋게 사진 솜씨를 뽐내며 서로 모델도 해보고 사진작가도 되어본다. 동네 슈퍼의 소주박스로 만든 집에 사는 귀여운 흰둥이를 쓰다듬는 헤빈이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 엄마 이금우씨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진다.

이금우씨가 작은 쪽대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신다. 뭔가 하고 봤더니 대문에 붉은 하트로 된 스티커가 붙어있다. '화목한 우리집' 이라고 쓰인 스티커!! 이집에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화목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느새 헤빈이도 옆에 와서 이 정겨운 대문앞 풍경을 보고 활짝 웃는다.

**작은 문구 하나지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열볼 수 있는 작은 스티커!!**

밖에서 우울한 일이 있더라도 집에 들어오는 길 대문 앞의 스티커를 보면 마음이 풀어질 것 같은 마음의 부적이다.

이안숙씨는 집 앞 조그마한 공간에서 자란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다른 사람들도 이안숙씨가 발견한 감나무로 모여들었다.

다들 넋을 놓고 카메라를 들이대니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감나무 주인 아저씨는 20년이나 된 감나무라고 알려주시며 처음엔 화분에서 키우던 건데 잘 자라서 대문 앞에 옮겨 심은 것이 저렇게 크게 자라 매해 감을 저렇게나 많이 맺는다며 자랑을 늘어놓는다.

태평동에서 찍은 우리동네 사진은 태평동 Art dream 발표회날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하나하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카메라에 담아간다. '시간의 기록' 첫 전시회를 장식할 사진은 어떤 걸까? 벌써부터 궁금하다.







Art Dream

Art Dream

## 남한산성 출사 2008. 11. 01

은박호일에 한줄씩 담은 김밥과 고구마,  
그리고 따뜻한 커피 한잔을 싸들고 출발한 남한산성 출사  
“길이 S라인이야!” 라고 외치는 시영이 엄마 최정란씨,  
정말 울긋불긋한 나뭇잎 사이로 구비구비 멋진 몸매를 뽐내는 길이  
말 그대로 S라인이다.  
일제히 카메라를 꺼내 S라인 몸매를 자랑하는 남한산성의 굽이치는 길도 담아보고,  
늦가을의 단풍과 이미 잎새들을 털어낸 앙상한 가지들도 담아본다.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한 남한산 초등학교에도 들러 아기자기한 교정을 둘러보며  
아이들의 손길과 상상력이 가득 담긴 그림들을 감상해본다.  
남한산성 아래에 위치한 학교이다 보니 공기도 좋고, 교정에 꽃과 나무들도 가득하다.  
교정에 아담하게 핀 맨드라미와 어릴적 꿀을 따 먹던 사루비아도 한번 어루만져 본다.  
‘시간의 기록’ 이란 이름처럼 오늘의 출사를 기념할 사진도 찍어본다.

영장산 공원과 태평동의 골목길,  
그리고 남한산성은 너무도 친숙한 공간이지만 ‘시간의 기록’ 작가들은  
손에 든 카메라가 있어 그 공간에서 새로움을 만끽할 수 있었다.

**네모난 틀 안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해준  
또 하나의 눈, 카메라!!**

‘시간의 기록’ 작가들의 사진은 앞으로 있을 전시회에서 뿐 만 아니라,  
한울신문 포토에세이를 통해서도 우리 주변의 친숙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계속 보여줄 것이다.



Art Dream

Art Dream

## 따뜻한 옥매트 위에서 2008. 11. 29

그 동안 함께 한 출사를 통해  
첫 전시회에 선보일 만한 멋진 작품들이 많이 탄생했다.  
오늘은 작품 전시회에 실릴 작품을 결정하는 날!

어느새 쌀쌀해진 날씨 덕에 박연우선생님을  
포함한 다섯명은 옥매트 위에서 작품발표회  
구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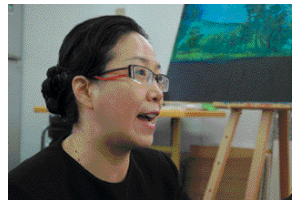
연작으로 가지는 박연우선생님의 의견에  
모두들 동의해서  
다들 각자의 사진 중에 연작으로 실을 만한  
사진을 떠올리며 논의한 결과,

최정란씨는 하늘,  
한경희씨는 태평4동, 이안숙씨는 접사사진,  
이금우씨는 빛을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기로 했다.

모두 소중한 작품들이네 막상 몇개를 고르자니  
그것도 참 일이다.

선택된 사진은 보정작업을 통해 더 나은  
작품으로 거듭날 것이다.

처음 찍은 사진과는 조금씩 그 완성도가  
달라지는 작품들!!  
전시회날 걸릴 작품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하다.



## 발표회에 전시된 작품들의 보정 전 모습

발표회에 전시될 사진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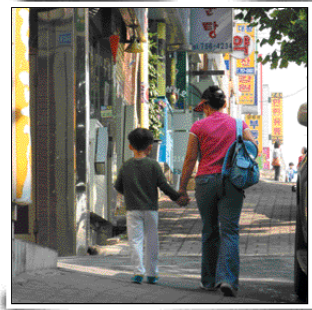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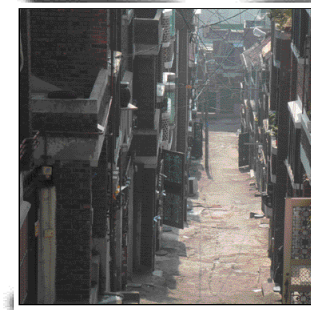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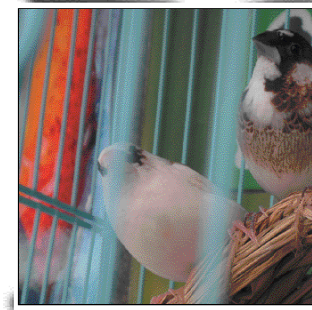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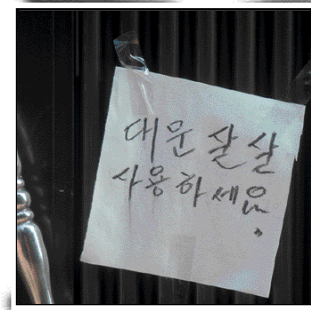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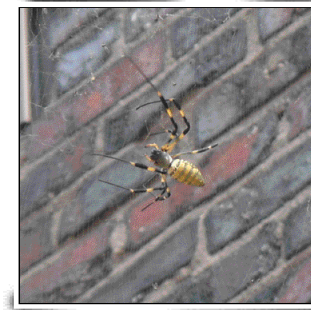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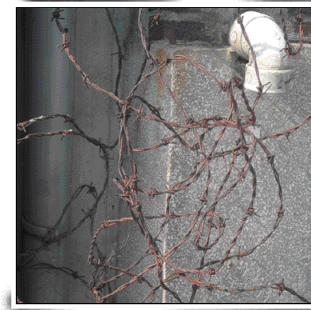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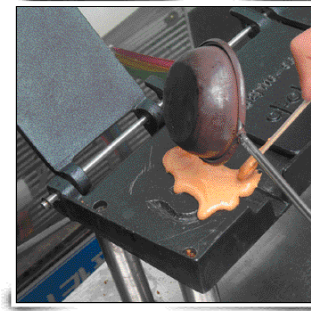


# 렌즈로 바라 본 태평동

이안숙씨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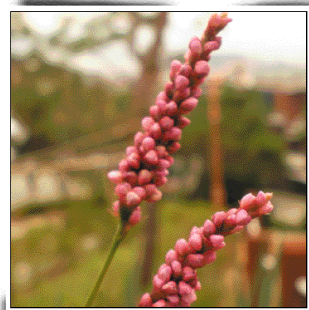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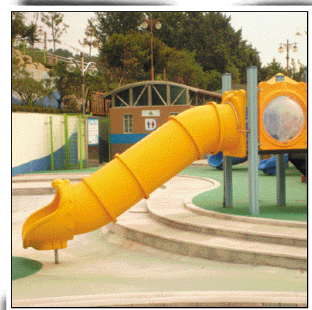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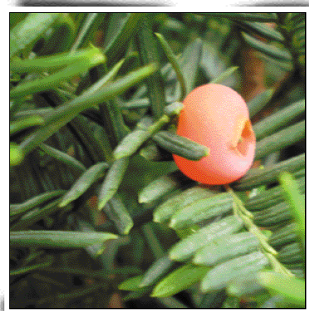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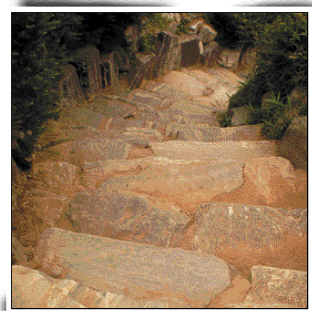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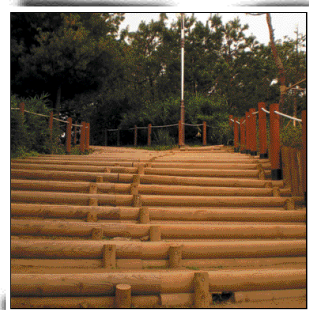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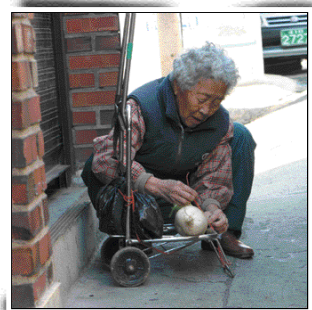
최정란씨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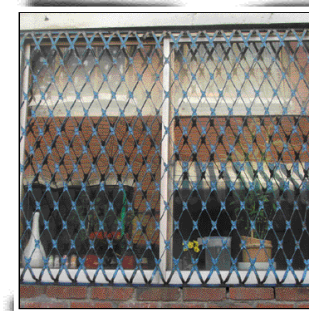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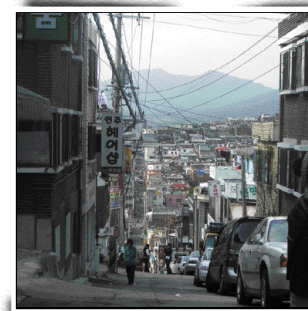




한경희씨의 작품



이금우씨의 작품



그림의 어원은 그리움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그 그리움의 대상은 무엇일까?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혹은 동경하는 것일게다.  
점과 선, 그리고 면으로  
그리움의 대상을 형태로 표현해보는 과정을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고 한다.

태평동 '그림마을' 은  
회원들의 취업과 여타의 경제활동 등의 이유로  
끝까지 수업을 지속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수요일 오전 10시 태평4동 복지회관에 모였던  
다섯 분들은 각각 어떤 그리움을  
도화지에 담고 싶었던 열망이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닫혔던 그림마을의 문이 11월 판화수업으로 재탄생되었다.  
그곳에 하나 두울 늘여가는 참여자들은  
오늘도 각자의 그리움을 새기고 있다.





## 팔 살 빠지겠네! 2008.0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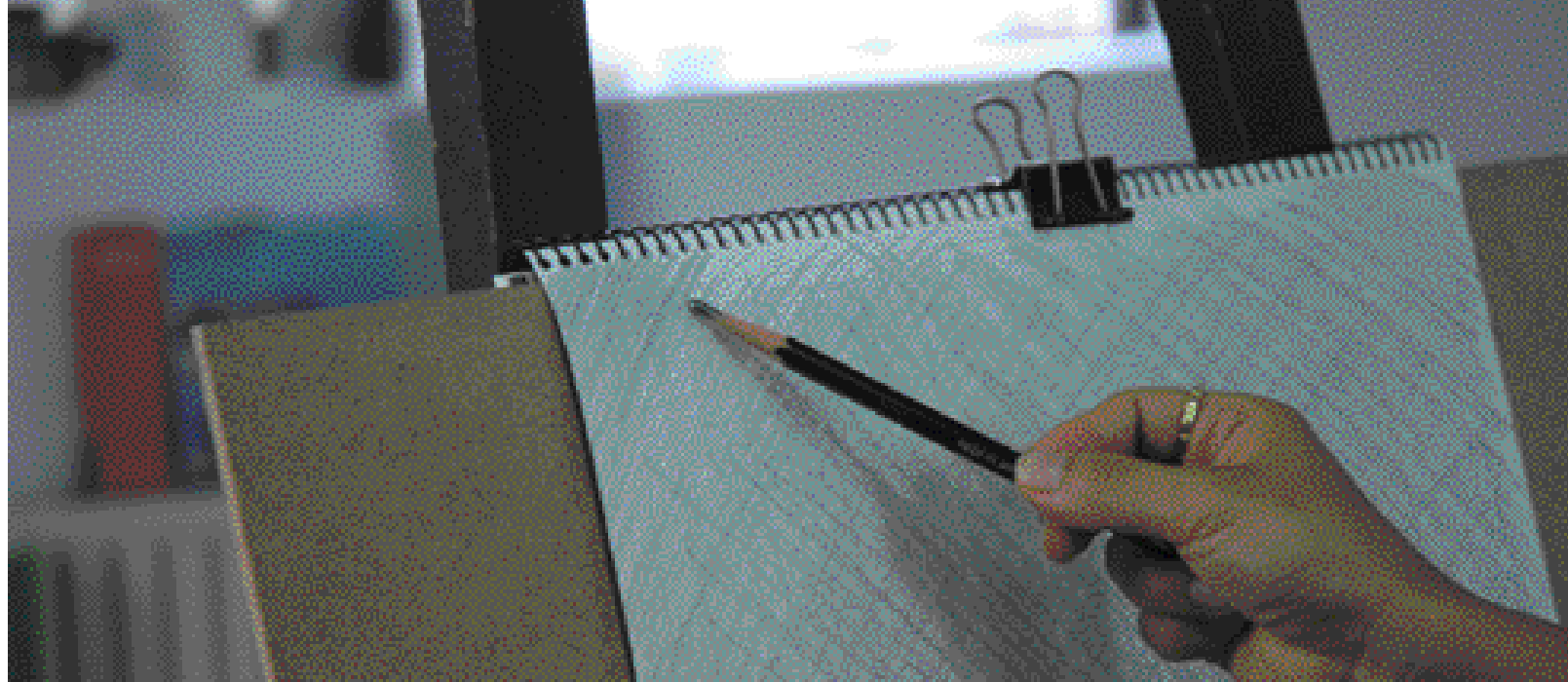
수요일 아침 10시, 아침부터 후덥지근한 여름이다.  
선풍기 한대만이 달달달 돌아가는 교실이지만 하늘과 맞닿은 듯 높은 태평동의 작업실은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하고 기분 좋은 자연의 바람이 들어온다.  
따사로운 햇살과 기분 좋은 바람이 휘감는 교실에는 다섯명의 금빛초등학교 6학년의 반대표 어머니들이 선그리기 연습에 한창이다.  
3시간 동안 열은 선을 반복해서 그린 첫 시간!!  
대단한 인내력이 필요했다.  
“팔 살 빠지겠네!! 이거 다이어트 확실히 되겠다. 이번엔 왼손으로 그려봐지지!!” 하며 지루할 법한 선그리기 시간을 즐기시는 이연숙씨!  
“선을 그리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한번에 두가지 일이 안된다며 선그리기에 몰두하신다.  
고요한 침묵 속에 연필의 사사삭 거림마저 느껴진다.  
“연필로 채색하는 것 같아요!”라며 누군가 침묵을 깬다.

김성수선생님은

“연필은 검정색이지만 사과를 그렸을때 빨간 빛 사과의 느낌이 생기는 마법이 벌어져요!”

라고 답해주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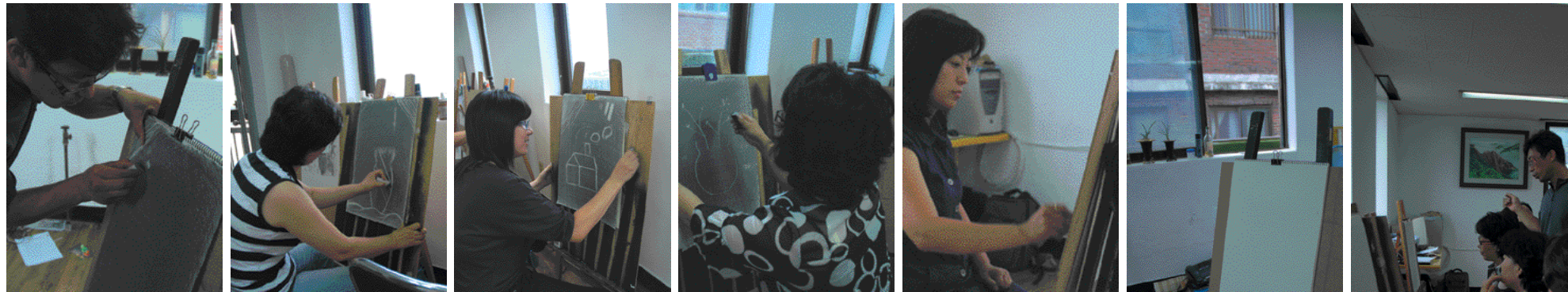
까맣게 변해버린 하얀 도화지에서 정말 어떤 색이 피어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애들이 미술학원에 다녀오면 새카만 종이만 가져와서 뭘 배우나 했어요!!”  
라며 혜림이 엄마 이연숙씨는 집에 가면 혜림이와 함께 선긋기 연습을 해보겠다 한다.



까맣게 변해버린 도화지를 이번엔 지우개를 이용해서 지워본다.  
어떻게하면 잘 지우까? 지우는 노하우를 터득해보는 시간이다.  
그런데 어느덧 까만 화폭에 하얀 그림이 그려진다.  
순식간에 지우개가 지우는 도구가 아닌 그리는 도구로 변했다.  
조용한 박선희씨의 화폭에는 순식간에 사과가 하나 그려진다.

“너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다!!”  
“그래서 딸을 예술이라고 지었구나!!”

주변에선 감탄과 함께 너도 나도 앞다투어 멋진 지우개 그림을 완성한다.  
“아이들도 그림 알려주십 안되요?”  
역시 어머니들이다. 좋은 것은 항상 아이들 먼저 해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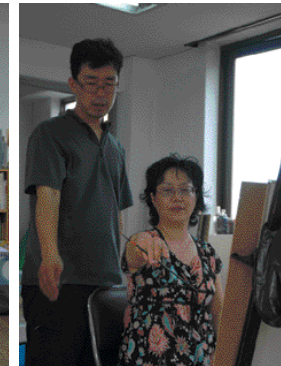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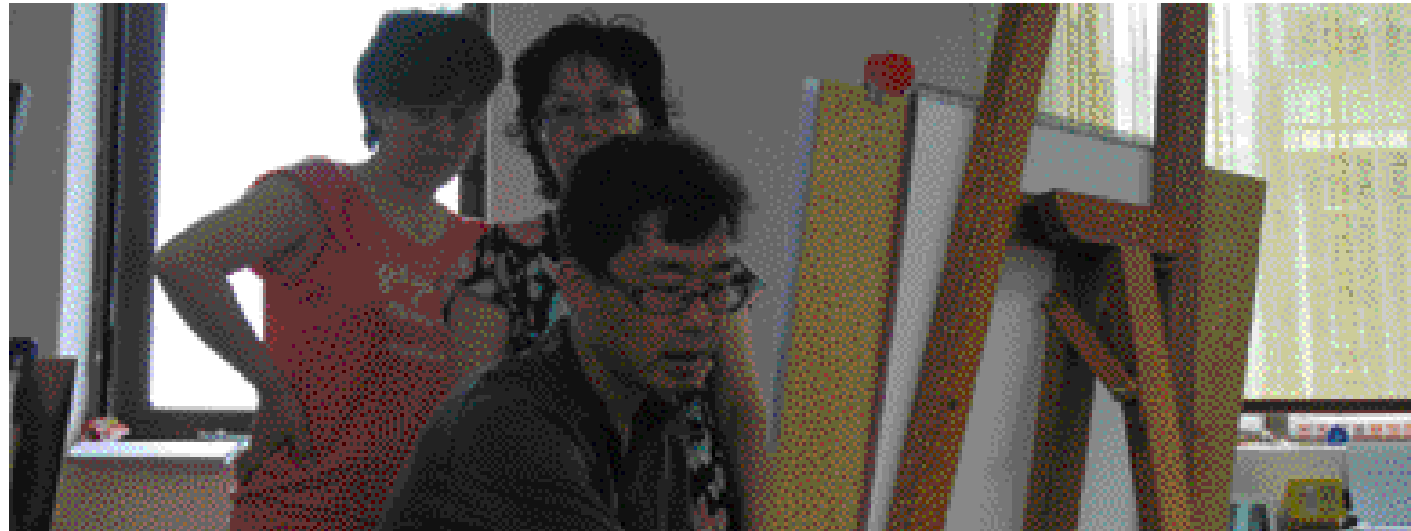


## 네모 그림자가 세모가 되버렸네! 2008. 07. 30

일찍 오셔서 커피를 타시는 한경희씨!  
 오늘 박선희씨는 회사 일로 늦는다는 소식을 전해주시다.  
 수업 전 열심히 연필을 깎으시는 그 모습이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하다.  
 그림을 배우는 사람에게 연필은 그만큼 소중히 다뤄야 하는 무기인 것이다.  
 직육면체의 도형을 그려보는 시간!  
 반사광을 머리에 새기며 그림을 그려 나간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날이 어두워졌다.  
 그림을 그리던 한경희씨가 소리친다.

**“날이 어두워지니깐 빛이 달라졌어요!!”  
 “네모 그림자가 세모가 되버렸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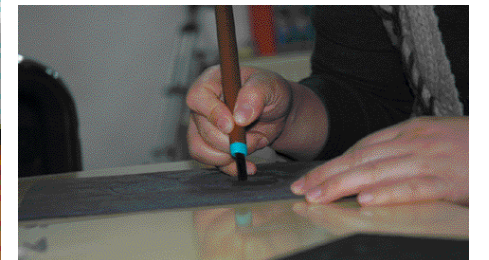
“날이 어두워지면서 자연광보다 형광등 빛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전 인상파 화가들은 그림을 빨리 그렸어요!!”  
 “상대적으로 아틀리에에서 그린 그림보다 사이즈가 작은 그림이 많은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빛이 달라져서 그림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도 다들 이런 변화가 신기하기만 하다.  
 “지우개 선 하나에 그림이 이렇게 달라지네!”  
 “언니 이거 작품같지 않아?”  
 이연숙씨는 오늘 그린 그림이 무척 만족스럽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일까?  
아니면 기초가 탄탄해야 하는  
그림 수업이 엄마들에게는 버거웠던 걸까?

수요일에 진행되던 그림마을 수업은 참여자들이 새로 취업을 하거나  
남편 일을 도와야하는 상황 등이 생기면서 참여자들이 하나 둘 줄었고 결국 문을 닫았다.  
닫혔던 그림마을의 문은 한울후원회 모임에서 승민이 엄마 박신아씨가 뒤늦게 그림마을에 대해 듣고,  
배워보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 11월에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직장생활을 하는 박신아씨를 고려하여 저녁 7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했다.  
이번엔 기초 과정이 긴 그림에 비해 쉽고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는 판화 강의를 시작되었다.  
뒤늦은 시작이지만 열의로 가득찬 박신아씨 덕택에 친구분도 한명 늘고,  
김성수 선생님께 아줌마 수강생이 7명이 되면 아이들도 가르쳐주겠다는 다짐을 받으시고는  
더욱 열심히 참여자를 모집하고 계신다.  
내년에는 '시간의 기록'의 사진 전시회와 함께 판화 전시회도 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 민들레 솜사탕처럼 익다

01. 태평동 Art dream 발표회

태평동에 뿌려진 Art dream의 흩씨가  
시간의 기록, 한울영상뉴스, 한울신문이라는  
이름의 꽃을 피워내고,  
그 노오란 민들레는 하얀 실타래처럼 변해가더니  
이윽고 솜사탕처럼 몽글몽글한 꿈들로 익었다.  
노오란 민들레의 꿈은  
태평동에 문화의 향기를 전하는  
Art dream을 꽃피웠다.

민들레  
솜사탕처럼  
익다



## 태평동 Art dream 발표회 2008. 12. 26

한울영상뉴스 아이들이 만든 영상과 한울신문에서 1년간 발행된 7회 분의 신문 그리고 시간의 기록 사진반의 작품 전시가 함께 한 행사,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를 이어갈 2기 기자들에게는 기자증이 수여된다. 멋진 작품으로 첫 전시를 무사히 마친 '시간의 기록' 사진반에게 더 나은 작품활동을 위한 축매제가 될 이번 행사는 태평동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더욱 알리고 퍼뜨려나갈 결실의 나눔터가 될 것이다.

아이들로부터 시작한 한울신문, 한울영상뉴스에서 '시간의 기록'이라는 어른들의 사진 모임으로까지 확대된 태평동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이 그동안의 결실을 모아 발표의 장을 마련했다. 한울영상뉴스 기자들이 만든 태평동 뉴스 영상과, 한울신문 기자들이 지난 1년간 발행한 총 7회 분의 신문, 그리고 한울후원회가 주축이 된 '시간의 기록' 사진반의 그 동안의 같고 닮은 실력을 뽐낼 첫번째 전시회가 함께 한 발표회에서는 그 동안 열심히 배우며 기자의 꿈을 키운 아이들에게 한울 공식 기자증도 수여되었다. 기자증을 받은 아이들은 날아갈 듯 기쁘다. 한울신문 아이들과 함께 소감을 밝힌 황성현 선생님! 박연우 선생님 후임으로 오신 황성현 선생님은 앞으로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한울신문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다짐을 하였고, 한울영상뉴스의 곽대현 선생님은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떤 영상을 만들까 궁금하고 의심이 간 것도 사실이지만 아이들에게 배우고 함께하는 영상을 만들었다는 감회를 밝히셨다.



교실 밖에 걸려진 시간의 기록의 작품들!!  
 사진을 찍은 본인들도 액자 안의 나의 작품이 꽤나 자랑스럽다.  
 오늘 전시한 작품은 주민자치센터에 다시 전시하여 태평동의 다른 사람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근우씨는 딸 혜빈이와 남편 앞에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한울신문 사진 기자 혜빈이의 눈에도 엄마의 사진이 여느 작가의 사진처럼 멋있기만 하다.  
 반짝반짝한 딸의 눈을 보니 엄마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사진 앞에 최정란씨의 친정어머님이 흐뭇하게 사진을 바라보시며,

“누구 찍은 거야?” 물으신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태평동에 사는 우리 이웃이요!!”

액자에 담긴 사진들은 주부들이 집에 있는 디카로 찍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사진을 찍은 본인들도 액자 안의 나의 작품이 꽤나 자랑스럽다.





## 민들레 홀씨 보기

올해를 끝으로

‘태평4동에서 동락태평하세’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성남문화재단의

우리동네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태평동에 뿌린 문화 예술의 씨앗은

처음 태평동에 날아왔던 홀씨처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또다시 작은 홀씨가 되어

성남의 다른 하늘에 퍼져갈 것이다.



민들레  
홀씨 보기

## 세종대왕을 찾아서 2008. 12. 13

한울신문 주최 여주 역사기행이 있는 날이다.

‘세종대왕을 찾아서’란 타이틀로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 신륵사를 코스로 역사 탐방을 할 예정이다.

12월 13일 오전 9시 성남초등학교에서 집결한 아이들과 부모님들!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 기자단 이외에도 여러명의 신청자가 있었다.

한울의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역사기행이라는 기회도 제공하고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1회 역사기행은

민들레가 흙씨를 멀리 날리듯  
태평동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널리 퍼트리는 또 하나의 흙씨가 될 것이다.

형준이는 오늘 기행을 영상뉴스로 만들 예정이다. 버스 안에서도 형준이는 캠코더로 이리저리 각을 잡아본다.

오늘의 역사기행 선생님은 산성동 역사교실 등에서 역사학을 강의하고 계시는 오세영 선생님이 맡아주셨다.

여주로 가는 길 동안 재밌는 역사퀴즈로 고대사부터 근대사를 한번 훑어주셨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역사퀴즈를 맞추는데 정신을 쏟다 보니 어느새 여주에 도착했다.





첫번째 목적지는 세종대왕릉! 한울영상뉴스 기자들은 열심히 촬영을 하고, 한울신문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다. 형준이는 특별히 엄마, 아빠, 동생 온가족이 모두 참여해 더욱 즐거운 역사기행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아이들의 취재모습을 함께 간 아이들은 궁금해했고,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를 모르는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한울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이들의 관심은 해시계에 집중되었다. 지폐에 등장 할 정도로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 그가 남긴 업적을 되짚어보며 아이들은 신기한 듯 감탄했다. 이미 책으로 많이 봐와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실제로 이 곳에 와서 그 당시 만들었던 발명품들을 보니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 아이들에게 현장학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느끼게 해주었다.

점심을 먹고 신륵사로 이동했다.

아이들에게는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로 기억되겠지만 부모님들은 과거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던 곳으로 기억하고 계셨다.

“아~ 예전엔 여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많이 변했네...!”  
하시며 그시절 달콤했던 데이트를 떠올려보신다.

신륵사에 이어 마지막 목적지로 명성황후 생가에 들렀다. 익히 알고 있는 명성황후의 최후 때문일까 다른 곳에서는 산만하게 들쭉던 아이들이 차분히 가라앉는다. 아직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명성황후 기념관의 동강 권오창 화백의 명성황후 진영 앞에서 아이들은 숙연해지기까지 한다. 하루 낮동안의 짧은 역사기행이었지만 근대사부터 근대사까지 재밌고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도 되고 부모님과 함께 추억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더불어 한울영상뉴스, 한울신문 기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 민들레의 꿈

태평동 Art dream 참가자들의 꿈과 바람을 들어보자

민들레의  
꿈

## 한울신문, 우리동네 신문 보셨어요?



참 힘든 여정이었다.

2007년에 이어 2008년 1년여 우리 어린 기자들이 뛰어다니며 만들어낸

우리 동네 신문 ‘한울신문’과 ‘한울영상뉴스’의 프로젝트가

2009년 1월호를 마지막으로 끝을 보게 되었다.

그동안 우리 기자들이 키만큼이나 한울의 키도 성큼 자라났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행복감이 밀려왔던가?

한편의 기사를 만들기 위해 발품을 팔고 낯선 사람과 인터뷰하고 밤을 새워 기

사를 작성하는 이들을 보며 스스로 감동하기도 했다.

신문이 나오는 날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조심스럽게 신문을 펼쳐보기도 했다.

영상뉴스 발표회 날 부모님들의 입가에 흐르던 잔잔한 미소를 잊을 수 없다.

동네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사람들, 특히 문화 활동가들이 참 신기해했다.

어린이들이 동네신문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고?

그리고 이 신문이 정말 초등학교생들이 만든 신문이 맞느냐고?

어떻게 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되었느냐고? 태평4동은 참 북 받은 동네라고.....

### 난 그저 동네신문은

어디에서나 실현가능한 문화 활동이라고 약간 으쓱해서 대답해 주곤 하였다.

한울의 성장은 선생님들의 헌신과 마을 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한울의 주인은 어린 기자들이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신문과 뉴스를 만들어 낸 이들이 우리 기자들이었고

이들의 힘으로 한울은 성장해 갔다.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적으로 신문기획에서 취재,

기사쓰기와 교정까지도 이들에게 모두 맡겨졌던 것이 올해의 특징이었다.

처음 이런 시도가 자칫 무모하게 보일수도 있고 프로젝트의 특성상 그 성과를 온전히 내지 못해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될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과감하게 이들을 믿어보기로 했다.

그 결과로 신문이 제때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났지만

우리 기자들은 한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책임성을 더욱 높이고

더욱 노력하는 자세를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니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았다는데

그 누구라도 동의할 것이다.

### 2기 기자들의 모습은 신문과 영상뉴스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첫해 프로젝트에서는 신문기자단이 더욱 활발하였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영상뉴스가 더욱 더 큰 힘을 갖고

활동하였다. 앞으로 아직 어린 2기 기자들에 대한 섬세한 지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제 한울신문, 영상뉴스가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서야할 시기가 되었다.

프로젝트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었던 성남문화재단의 예산지원은 올해로 마감이 되었고

앞으로 우리는 후원금에 의존하여 기자단 운영을 지속해야 한다.

아직까지 정기적 후원자가 많지 않은 조건에서 참으로 힘든 도전이 될 것 같다.

다행히 기자단과 후원회원들은 어렵더라도 기자단을 지속할 것에 대해 마음을 모아주었다.

격월로 신문을 발행하더라도 이제 온라인상에서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시도하기로 하였다.

어린이 기자 뿐만아니라 주민기자들도 더욱 발굴해 보자고 했다.

누구나 우리 동네의 기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궁극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한울후원회를 안정화 시키는 것이야말로 향후 한울기자단 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후원회를 더욱 확대하는 방법은 따로 없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만드는 기사들이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힘이 되도록

주민들과 감동이 넘치는 기사들로 만나는 것 외에 그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참 힘든 일이겠지만 아직도 나는 꿈꾸고 있다.

모든 주민이 기자가되어 동네 소식을 전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도 나누며

뜻뜻한 정이 살아있는 정겨운 동네를 만드는 것을... 이것이 한울이 아니겠는가?

## 참여자 후기



### 지난 몇 개월동안 매주 토요일이 즐거웠다.

배움에는 끝이 없었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때의 설레임 기대감등등으로 사진을 배우고 나서 처음엔 욕심이 많았다. 잘찍어야겠다는 잘 찍고 싶다는 그러다보니 사진 찍는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다. 디지털카메라여서 얼마나 다행인지 부끄러운 사진들은 금세 지워 버렸다. 한울신문 발표회때 사진도 같이 전시했는데 자랑스럽기도 한 반면 부끄럽기도 했다. 사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해준 박연우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에는 사진 찍는 것에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찍어보리라!!!

시간의 기록 - 한 경희



### 사진과 사진속 그 무엇을... 열심히 알아가고 싶습니다

2007년 가을쯤부터 한울신문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집 자랑거리 시영이 덕분에 사진이라는 재미있는 일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론수업은 어려웠지만 차츰 빛을 읽고 구도를 알게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사진에도 관심 갖고 감상하게 되는 취미를 얻게 되었고, 찍을수록 사진이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며 지내왔습니다..

2008년 올 한해는 사진을 벗삼아 또다른 나를 찾아볼 수 있었던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한울신문이 어린이들이 만드는 신문이라는 특징 때문에 약간은 서툴기도 했고 실수도 있었지만, 기자라는 접해보지 않았던 영역에서의 커다란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기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 한울신문을 만들기 힘겨운 날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끈기있게 각자의 꿈과 희망, 끼와 재능을 한울신문을 통해 꼭 펼쳐보였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해봅니다.

시간의 기록 - 최 정란



### 그런게 다 경험이고, 인생의 고통이 아닐까?

저희가 한울신문을 만들게 된 것이 제작년 8월이니 벌써 1년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신문이 한호 한호 나올때마다 재밌고 즐거웠고, 지금보면 참 큰 추억이지만, 신문을 직접 만들고 직접 취재 가는 것이 처음이라 어렵고 당황스러워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다 기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어 지금까지 잘버텸었던 것 같습니다.

1호때 저희가 취재를 가야했었는데 갑자기 수련회에 가게 되어 핑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자가 취재를 갔는데, 짜증도 안부리며 대신해줘서 참 고맙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외에도 신문이 한호 한호 나올때마다 많은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9호 때입니다. 그때가 막 베이징 올림픽이 끝난 후여서 펜싱에서 은메달을 수상한 남현희 선수의 부모님과과의 취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취재가 오후여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명소탐방을 맡고 있는 김은하 기자에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기자와 동행 취재를 해야하는데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비몽사몽인 상태로 대충 집에 있는 디카를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저희 둘다 길치인지라 버스로 놓치고, 3시간을 들고 돌아 찾아간 곳이 바로 9호 명소탐방의 반딧불이 자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하니 인물탐방 취재약속 1시간 전이라 저는 사진을 찍고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그때 그 먼거리를 택시를 타고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까져서 신문을 만들어야 할까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생각하기도 싫은 하루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재밌고 특별한 경험이었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전 부터는 2기 기자들이 들어와 기사를 쓰지않고 편집장으로써의 역할만 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조금씩 저희 스스로 하시기를 원하시고, 기자들도 많이 지쳐하던 때라,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선생님과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 같아서 힘들고 지쳐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게 다 경험이고, 인생의 고통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중학생이 되도 후배들이 저희 처럼 갑작스런 사고나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시기가 올 때 잘 알려주고,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한울신문 편집장 - 전 은 지





## 신문을 기다리는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파이팅이다!

신문부에 처음 들어선 2007년 8월, 방송부나, 같은 반이나, 여러모로 역이고 알던 친구들이 많던 날이라, 신문부원을 뽑는다고 해도 떨리지 않는 날이었다. 첫 편집회의에는 신문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원고는 누가 맡아야 적절할까, 고민 고민 하느라 2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집중 했던것 같다. 이제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다. 초자 기자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벌써 후배를 뽑을 정도가 된 우리 한울신문기자들!

다시 생각해보면 멋지고 보람 있는 것 같다. 신문을 만들다보면 취재기사와 정보를 알아서 편집하는 기사로 나뉜다. 내가 맡고 있는 인물탐방은 사람을 주제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면이다. 하지만 우리 동네엔 속스럼을 많이 타셔서 그런지 1호면부터 핑크가 나버렸다.ㅠㅠ 핑크가 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때는 시간을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은 포기해 버리고, 어느 때는 단칼에 거절해 버리는 그런 슬픈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거절하신 분들도 이제는 다 추억으로 남아버린 ...

직접 취재대상을 찾아 헤매는게 이렇게 힘든 것인지 막상 기자생활을 하다 보니 깨달은 것 같다. 솔직히 아주 처음에 설레던 기분이 지금까지 쪽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밌기만 한 생활도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던 날이 많았다. 나 혼자라면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겐 아니 나의 기자생활엔 친구들도 있고 신문을 기다리는 독자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파이팅이다!

한울신문 기자 - 오 시 영



## 웃고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어서 기분 좋답니다

저는 명소탐방 취재 갔을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볼게요. 그때가 9호에 나갈 기사를 써야 했는데,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에 취재를 갔었어요. 전화로 취재 약속을 잡고 인터넷 검색으로 위치를 확인해봤죠. 그런데 매번 동행취재를 하던 헤빈이가 할머니 댁에 갔던가 하는 일로 같이 못가서 여기저기 연락해보고 은지랑 같이 갔죠. 그 날 오전에 찾아갔는데 은지는 오후에 다른 취재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위치만 확인하고 가는 방법을 자세히 보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 야탑에 가서 일어났죠. 저희가 버스를 잘못 내리는 바람에 야탑역에서 내렸는데 도무지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묻고 또 묻고 그렇게 1시간 쯤 헤매다가 은지가 시영이에게 전화로 SOS를 요청했죠. 그래서 시영이가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가르쳐준 곳으로 갔어요. 결국 취재장소에 도착하고 나니 약속시간에서 2시간이나 지나있었죠. 다시 전화해서 만나기로 하고 죄송한 마음에 또 목도 말라서 근처 슈퍼에서 음료수를 사서 취재를 갔는데, 전화하고 나서 이동하시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지 기다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지의 취재시간이 점점 다가왔죠. 결국 은지는 전체적인 모습 몇 장을 찍고 취재대상인 김경희씨가 오시고 인사만 드리고 갔어요. 저는 취재가 끝난 뒤 집에 가는데 그 분께서 몇 번 버스를 타야하는지 가르쳐주셨어요. 그런데 버스를 놓치고 말아서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갔어요.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했죠. 계속 걷고 있었는데 김경희씨가 오셨어요. 사무실에 가시는 길이었죠. 그 분이 제게 야탑역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주셔서 한참 걸은 다음 야탑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어요. 아, 정말이지 저는 너무 길지라서 걱정이예요. 하지만 이 날 외에는 길을 잃은 적은 없답니다. 이 궁극의 방향치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기자의 가장 필요한 점이 길 찾기인데!! 그래도 지금은 웃고 넘길 수 있는 추억이 되어서 기분 좋답니다^^

한울신문 기자 - 김 은 하



## 무언가를 배우면서 발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

우선 한울신문 기자 활동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맡은 기사를 꼭 써야 된다는 책임감, 인터뷰를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하는 자신감, 취재 시간을 꼭 지켜야 된다는 약속 등을 배운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제일 많이 배운 것은 글쓰기 실력 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자활동을 하면서 기사를 썼을 때 자연스럽게 않았고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쓴 기사를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글이 어색한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사라는 걸 처음으로 써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는 날 박연우 선생님과 한울신문 멤버들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생님과 친구, 언니들에 입을 통해 저의 글의 문제점 등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글쓰는 방법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때 생각을 하니 첫 취재를 한날이 생각이 듭니다. 난생 처음으로 취재를 가는 것 이어서 긴장이 되고 불안한 마음을 추스르고 원래 한울신문 기자였던 소희랑 취재를 했습니다. 준비해온 질문을 하는데 답을 너무 단답형으로 답해주셔서 첫취재의 쓴맛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모두 끝나고 인사를 하고 취재를 끝내면 되는데 어떻게 끝내야 할지를 잘 몰라서 괜히 취재와 상관이 없는 질문을 했는데 다행히 대답해주셔서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던게 저의 첫 번째 취재 였습니다. 취재가 끝나고 집에와서 저는 마음 속으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 첫 취재같은 일은 없어졌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는 제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무언가를 배우면서 발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 같다는 걸 한울신문 기자활동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늘 많은 도움을 준 한울신문 기자활동을 앞으로 더 할 것 이고 꼭! 하고 싶습니다.

한울신문 파이팅! 전지혜 화이팅!

한울신문 기자 - 전 지 혜



## 내 꿈은 신문이 매달 1일에 나오는것이다.

내가 처음 어린이기자 뽑는다고 해서 학교에 갔을 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사진기자 한다고 해버렸다. 하지만 별로 후회는 안 된다. 처음 은지랑 시영이랑 어떤 가게에 가서 문전박대당한 일이 잊히지 않는다. 난 그 일이 왜 그렇게 웃기지?ㅋㅋ 솔직히 말하면 난 사진기자 하기 전에 카메라는 잘 만지지도 않았다. 근데 의외로 재밌다! 처음에 사진기자 나밖에 없어서 온갖 취재 다 따라다녔는데, 지금은 취재도 잘 안 간다 휴... 처음에 선배들이랑 같이 모임하고 했을 땐 벌써 재작년인가? 그리고 하기 싫다고 나간 몇 명의 아이들이 생각난다... 처음엔 기사도 마감 잘 맞춰서 쓰고 했는데 요즘은 비교된다. 마감을 계속 늦추고 신문 하나는 빼먹기까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울 동공원에 박연우쌤이랑 은하랑 취재 갔을때.

박연우 쌤이랑 은하랑은 항상 차를 타고 멀리멀리 나갈때가 많았는데..바자회 가서 떡볶이도 먹고, 둔촌 유적지 구경도 하고 장욱진 생가도 가보고..앞으로도 유익한 곳 많이 다녀보고 싶다. 히힛, 이제 마감도잘지키고 취재도 열심히 따라다녀야지!

내 꿈은 신문이 매달 1일에 나오는것이다. 제발!! 제발?

한울신문 기자 - 안 헤 빈



## 지금은 좋은 추억!

선생님이 복불복 게임을 찍느라고 소금물을 마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무지 짠을거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은 금연공익광고를 찍었을때이다. 내가 촬영할 차례였는데 준호가 캠코더를 만지고 싶어서 괴롭혀왔다. 그땐 많이 짜증이 났었는데...그냥 지금은 좋은 추억인것 같다.

한울영상뉴스 기자 - 노 종 원



## 카메라를 배우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되었다.

처음 영상뉴스를 시작할때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안 무섭고 재밌게 알려주셔서 잘 할 수 있었다. 카메라를 배우고 아이들과 지내면서 서로의 소중함을 알게되었다. 상영회를 하는 날 경비아저씨께서 문을 안 열어주셔서 출고 화가났었지만 이런 정도는 지금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는 것 같다. 더 열심히 해서 장래 희망으로 삼을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발판으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한울영상뉴스 기자 - 최 종 문